2024. 09 동향

# 항만과 산업

##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www.kmi.re.kr

**발행일** 2024년 9월 30일
**편집·발행인** 김종덕 원장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TEL** 051-797-4800 **FAX** 051-797-4810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02 국내 항만 주요 동향
14 국외 항만 주요 동향
25 품목 및 산업 주요 동향

### 국내 항만 주요 동향

- BPA, 미국 LA/LB 지역 물류센터 개장
- YGPA, 폐알루미늄 자원순환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 UPA, 안전점검에 수중드론 활용

### 국외 항만 주요 동향

- 중국, 아프리카와 무역 협력 지속 성장
- 인도 주요 항만 파업 취소, 그러나 공급망 문제 여전
- 중부 및 동부 유럽, 홍수로 인해 물류 지연 발생

### 품목 및 산업 주요 동향

- 골재 수급 불안 해소 위해 규제 완화 대책 검토
- 동남아 석탄 수입량 '30년까지 증가 전망
- LNG·LPG 복합발전, 올해 말부터 상업 가동 예정

항만과 산업은 최신 국내외 항만물동량과 산업 동향을 월 2회 이메일로 배포하고 있으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www.kmi.re.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 수신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051-797-4657) 또는 이메일(pdac@kmi.re.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 01 국내 항만 동향

## 1) 부산항

### 1 부산항만공사(BPA), 미국 LA/LB 지역 물류센터 개장[1)]

- **BPA는 지난 9월 5일 미주지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LA/LB 지역에 물류센터를 개장함**
  - BPA는 미주지역 전문 국제물류주선업체인 주성씨앤에어(주)와 함께 카슨지역에 민관합작 복합물류운영법인을 설립함
  - 해당 물류센터는 창고면적 8,514㎡(부지면적 17,035㎡) 규모이며, '25년에는 냉동·냉장 화물 시설도 구축될 예정으로 K-뷰티 화장품과 더불어 K-푸드도 취급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 **또한 해당 물류센터는 KOTRA 해외공동물류센터로 지정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해외에 독자적으로 물류센터 확보가 어려운 중소·중견 기업들에게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을 이어나갈 방침임**

- **한편, BPA의 LA/LB 물류센터는 네덜란드, 스페인, 인도네시아에 이은 네 번째 해외 물류 기지이자 공공기관 최초로 미국에 확보한 해외 물류 공급망이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수출기업들에게 안정적인 물류 공급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1)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4.09.06.), https://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mCode=MN1445&idx=32657(2024.09.20. 검색)

## 2 BPA, 부산항 운영사 대상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설명회' 개최[2)]

- **BPA는 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로 편입되는 부산항 운영사들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설명회를 개최함**
  - 지난 7월 31일 환경부 고시에 따라 내년부터 부산항 신항 1~5부두가 온실가스 배출권 대상업체로 편입될 예정임
  - 온실가스 배출권 개념 및 배출권 거래제도를 포함하여 향후 부산항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감축할 수 있는 대응방안 등을 포함하여 논의가 이뤄짐

- **한편, BPA는 부산항 운영사들이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에 편입되는 것을 계기로 부산항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 밝힘**
  - BPA는 '30년까지 부산항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을 목표로 다양한 탈탄소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2)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4.08.28.), https://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mCode=MN1445&idx=32623(2024.09.20. 검색)

## 2) 인천항

### 1 인천항~베트남을 잇는 컨테이너 신규항로 KCH 개설[3)]

- **인천항만공사(IPA)는 국적선사인 천경해운, 팬오션이 공동운영하는 KCH(Korea China Haipong) 서비스가 인천항에서 신규 운영된다고 밝힘**
  - KCH 노선은 1,000TEU급 선박 2척이 투입되는 주 1항차 서비스로, 인천항~칭다오항(중국)~닝보항(중국)~하이퐁항(베트남)~서커우항(중국)~인천항을 기항함
  - 첫 항차로 지난 8월 30일 천경해운의 TC MESSENGER호가 인천 신항 선광컨테이너터미널(SNCT)에 입항함
  - 동남아시아 및 중국 기항지를 잇는 항로 개설을 통해 인천항에 연간 3만 TEU 이상의 신규 컨테이너 물동량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8, sygen@kmi.re.kr

### 2 인천~제주 간 화물선 한시적 운항으로 인천항 연안 2부두 운영 재개[4)]

- **IPA는 '24년 1월 인천~제주 여객항로 중단 이후 운영을 멈췄던 연안 2부두를 인천~제주 간 생필품 등 해상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힘**
  - IPA는 인천~제주 여객항로 재개 또는 연안여객선 선석 재배치 등 기타 여건변화가 발생할 때까지 인천↔제주 간 화물선 운항을 위해 연안 2부두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임
  - 연안 2부두 운영재개를 통해 인천~제주 간 물류 문제를 해소하고 인천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이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8, sygen@kmi.re.kr

3) 인천항만공사 보도자료(2024.09.01.), https://www.icpa.or.kr/article/view.do?articleKey=28347&searchSelect=title&boardKey=217&menuKey=400&currentPageNo=2(2024.09.23. 검색)

4) 인천항만공사 보도자료(2024.09.02.), https://www.icpa.or.kr/article/view.do?articleKey=28362&searchSelect=title&boardKey=217&menuKey=400&currentPageNo=2(2024.09.23. 검색)

## 3) 여수·광양항

### 1 광양항 신규 컨테이너 서비스 유치[5)]

**광양항은 장금상선의 신규 컨테이너 정기선 서비스인 BTS(Busan Thailand Saigon) 서비스를 유치함**

- 여수광양항만공사(YGPA)에 따르면 해당 BTS 서비스에는 약 1,800TEU급 선박 3척이 투입되며, 주당 약 360TEU의 물동량을 소화할 예정임
- 이에 광양항에는 연간 1만 8천 TEU 이상의 물동량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번 신규 항로 유치를 통해 주당 82.5항차의 컨테이너 정기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
- BTS 서비스는 9월 12일 '흥아 호치민(HEUNG-A-HOCHIMINH)호'가 광양항서부 컨테이너터미널(GWCT)을 통해 첫 입항 예정임
- YGPA는 이번 신규항로 유치를 통해 중국, 베트남, 태국 등 광양항 주요 교역국과의 항로연결성이 강화되고, 동남아 선복 확대를 통한 수출기업 지원으로 지역경제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김영훈** 전문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 2 YGPA-(주)포스코엠텍, 폐알루미늄 자원순환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6)]

**YGPA는 지난 9월 6일 ㈜포스코엠텍과 '폐알루미늄 자원순환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힘**

- 이번 협약을 통해 양 사는 알루미늄 선순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수거 활동 지원, ESG 경영 실천을 위한 자원 재활용 활성화 방안 모색, 자원순환 나눔기금 조성을 통한 지역 사회공헌 활동 전개 등 알루미늄 자원순환에 대한 다각적인 협력을 모색하기로 합의함
- YGPA가 여수·광양항 등에서 알루미늄을 수거 및 제공하면, ㈜포스코엠텍은 철강 부원료로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함
- 또한 YGPA가 제공한 알루미늄으로 조성된 기금은 연말 지역 사회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여 ESG 경영의 모범 협력 사례로 이어나갈 계획임

**김영훈** 전문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5) 여수광양항만공사 보도자료(2024.09.11.), https://www.ygpa.or.kr/kr/ygpa/public_corporation_news/public_corporation_news/?boardId=bbs_0000000000000213&mode=view&cntId=1822&category=(2024.09.20. 검색)

6) 여수광양항만공사 보도자료(2024.09.06.), https://www.ygpa.or.kr/kr/ygpa/public_corporation_news/public_corporation_news/?boardId=bbs_0000000000000213&mode=view&cntId=1818&category=(2024.09.20. 검색)

## 4) 울산항

### 1 울산항만공사(UPA), 안전점검에 수중드론 활용[7)]

**UPA는 수중드론을 활용해 북신항 액체부두의 안전점검을 진행함**

- 안전점검은 올해 초에 조성한 북신항 액체부두 시설물 점검과 내부 준설토 투기장 매립 진척도 및 지장물 확인, 수심측량 등을 위해 진행됨
- 수중드론을 활용한 안전점검은 검사 기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어 향후 울산항 항만시설 점검에 적극 활용할 계획임
- 무엇보다, 울산항은 수심이 깊어 육안 점검이 어렵고 연간 2만 척이 넘는 선박이 수시로 드나들어 잠수부 투입 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수중드론을 활용한 안전점검은 산업재해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 2 UPA, LNG 연료 공급 중 유출을 가정한 재난대비 훈련 실시[8)]

**UPA는 9월 11일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 증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LNG 벙커링 중 유출 상황을 가정하여 북신항 액체부두 일원에서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함**

- UPA를 비롯하여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울산해양경찰서, 울산소방본부 특수대응단, 남부소방서, 해양환경공단,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중앙병원 등 총 9개 기관에서 170여 명이 훈련에 참여했으며, 9월 10일 '제8회 울산항 국제 항만안전 콘퍼런스'에 참여한 동남아 항만안전담당자 등 30여 명이 참관함
- 훈련은 LNG·경유 이중연료 추진선인 울산태화호를 모의 사고 선박으로 설정하고 연료 공급 중 LNG가 유출돼 화재·폭발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되었으며, 특히 올해 초 울산항에 취역한 LNG 방제13호함과 화학방제함 등 선박 9척, 항공기 1대, 오일펜스 300m, 열화상카메라 등이 훈련에 동원됨
- 참가자들은 선내 초기 대응과 인명 구조, 화재 진압, 유출 물질 탐지, 방제 조치 등을 차례로 수행함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7) 울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4.08.12.), https://www.upa.or.kr/portal/board/post/view.do?bcIdx=671&mid=0501010000&idx=14137(2024.09.23. 검색)
8) 울산제일일보(2024.09.11.),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54298(2024.09.23. 검색)

## 5) 평택·당진항

### 1 제27차 한·중 해운회담, 평택~룽옌 항로 재개 여부에 관심[9)10)]

**중국이 한국 측 지분이 더 높은 카페리선사의 여객 승선 불허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 칭다오에서 9월 11~12일 열린 제27차 한·중 해운회담에 관심이 집중됨**

- 한·중 해운회담은 '19년 7월 서울에서 열린 26차 회담에 이어 5년 만에 재개되었으며, 이번 회담에서는 카페리선박 선령 제한, 평택·당진항~산둥성 룽옌항 등 항로 재개에 대한 내용이 다뤄짐
- 평택과 중국 간 개설된 5개 항로의 카페리선사 중 영성대룡해운(대룡훼리)를 제외한 4개 선사는 중국 측 지분이 50~98%이나, 대룡훼리는 '19년 9월 한국 대저건설이 중국 시샤커우그룹의 지분 30%를 인수하면서 현재 한국 측 지분이 80%인 상황임
- 한·중카페리는 '23년 8월부터 여객 승선이 재개됐음에도 대룡훼리만 안전검사와 임대선박 사용 등을 이유로 중국 측으로부터 여객 승선 허가를 받지 못했으며, 중국이 선사지분 과반을 확보하고자 고의로 승선을 불허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분 문제가 논란이 됨
- 관련 업계에서는 중국이 모든 카페리선사 지분 과반을 확보하면 선사를 통합하거나 중국 측 항만그룹에 예속될 수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해 옴
- 해양수산부는 제27차 한·중 해운회담 결과, 기존에 합의한 '컨테이너 항로를 우선 개방한 뒤 카페리 항로 개방을 추진한다'는 기존 해운항로 개방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밝힘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9) 경기일보(2024.09.12.),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911580241(2024.09.23. 검색)
10) EBN산업경제(2024.09.13.), https://www.ebn.co.kr/news/view/1637091(2024.09.23. 검색)

## 6) 포항항

### 1 포항항,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모집[11)]

**포항지방해양수산청(포항청)은 자유무역으로 지정된 포항항 항만배후단지에 신규 물동량을 창출할 수 있는 입주기업을 모집함**

- 이번에 모집하는 배후부지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913번지와 913-1번지 2개 구역으로, 구역별 면적은 15,063㎡와 54,503㎡이며, 구역별로 각각 입주업체 1개 사를 선정할 계획임
- 신청 자격은 포항항을 입출항하는 선박을 이용하여 물류업, 제조업 및 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으로 수출입 비중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도 신청이 가능함
- 사업계획서는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접수하며, 이후 서류심사, 사업계획서 평가 등을 걸쳐 우선협상대상자를 11월 초에 선정할 예정임
- 포항청은 이번 입주기업 모집을 통해 신규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배후단지에 우수기업을 지속 유치하여 포항항을 영남권 수출입 활동 지원과 물류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예정임

**조성현** 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11)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2024.09.12.), https://pohang.mof.go.kr/ko/board.do?menuIdx=2855&bbsIdx=106400(2024.09.20. 검색)

## 7) 동해·묵호항

### 1 울릉도 이용객 감소로 인한 경영난으로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휴업[12)]

-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해운법」 제18조에 따라 정도산업㈜의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휴업을 허가함**
  - 울진군에 위치한 정도산업㈜은 씨스타1호를 운영하며 묵호-울릉-독도 구간을 운항함
  - 씨스타1호(388톤)는 묵호, 울릉(도동), 독도를 연결하는 내항 여객선을 운항하던 회사로, '24년 9월 20일부터 휴업을 허가받았음

- **경기 침체로 인한 관광객 감소로 경영난이 심화되어, '24년 9월부터 11월까지 총 29일 동안 휴업 예정이며, 휴업 일자는 주로 비성수기에 해당함**
  - 휴업 기간은 9월에 5일, 10월에 14일, 11월에 10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 울릉도와 독도를 연결하는 항로가 일시적으로 중단될 예정임

**동해항 - 울릉도 정기 여객선 휴업 기간**

| 구분 | 일자 | 휴업 기간 |
|---|---|---|
| 9월 | 20~22일, 28일, 30일 | 5일 |
| 10월 | 1일, 7~10일, 15~17일, 22~24일, 29~31일 | 14일 |
| 11월 | 1~10일 | 10일 |
| 합계 | | 29일 |

자료: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2024.09.20.), https://donghae.mof.go.kr/ko/board.do?menuIdx=2532&bbsIdx=106489(2024.09.20. 검색)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12) 동해지방해양수산청(2024.09.20.), https://donghae.mof.go.kr/ko/board.do?menuIdx=2532&bbsIdx=106489(2024.09.20. 검색)

## 8) 목포항

### 1 목포신항, 해상풍력 사업 본격화[13)]

- **목포신항 해상풍력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전남해상풍력 주력 기업들의 기자재 적재가 본격화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음**
  - 목포시는 현재 목포신항에 99MW 규모의 해상풍력 기재자 적재되어 있으며, 자은도 해상으로의 운송을 거쳐 올 12월 사업 완료와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힘

- **한편, 목포시는 지난 7일 목포신항을 중심으로 전남 해상풍력산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목포시를 국내 해상풍력 산업 거점도시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함**
  - 특히, 지난 4월에는 세계 1위 터빈제조사인 '베스타스'와 글로벌 해운사인 '머스크'와 약 3,000억 원 규모의 터빈공장 설립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6월에는 목포신항 일부 구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됨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13) 목포시청 보도자료(2024.09.09.), https://www.mokpo.go.kr/www/mokpo_news/press_release/report_material?idx=529149&mode=view&search_type=title&search_word=%ED%95%B4%EC%83%81%ED%92%8D%EB%A0%A5&page_scale=15&start_date=2021-09-19&finish_date=2024-09-19&search_date=y(2024.09.20. 검색)

## 9) 대산항

### 1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국제크루즈선 취항을 위한 여객터미널 정비 추진[14)]

- **대산지방해양수산청(대산청)은 올해와 내년 상반기에 각각 3억 원을 투입하여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시설 정비 및 운영 인력을 보강할 계획임**
  - 국제여객터미널 수화물장 보강, 비 가림막 설치,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등 시설 전반을 정비할 계획임
  - 대산항에는 올해 5월, 11만 4천 톤급 크루즈선이 최초로 취항하면서 약 3천 명의 여행객이 출입국 수속 등을 위해 여객터미널을 이용한 바 있으며, 최근 서산시는 내년에도 대산항에 국제 여객크루즈선 취항 계획을 밝힘
  - 대산항 1부두에 위치한 국제터미널은 '16년 3월 28일에 준공했으며, 대지 37,989㎡, 연면적 7,493㎡, 주차 206대, 수용인원 600명으로 1층에는 입국장, 2층에는 출국장과 X-RAY 검사대, 검역대, 입국심사대, 보안·세관검색대, 물품 인도장 등이 위치함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전경**

자료: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2024.08.27.), https://daesan.mof.go.kr/ko/board.do?menuIdx=3019&bbsIdx=106098 (2024.09.23. 검색)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14)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2024.08.27.), https://daesan.mof.go.kr/ko/board.do?menuIdx=3019&bbsIdx=106098(2024.09.23. 검색)

## 10) 군산항

### 1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군산항 중량물 야적장 운영사 모집[15)]

**군산지방해양수산청(군산청)은 군산항 중량물 야적장 운영사를 9월 9일부터 10월 21일까지 공개 모집함**

- 중량물 야적장은 해상풍력 업체의 야적장 부족 해결책으로 7부두 배후에 7만 ㎡ 규모로 공급될 예정으로 타워, 블레이드 등 해상풍력 기자재의 조립과 야적 등의 용도로 운영될 계획임
- 야적장 운영사 자격은 최근 3년간 해상풍력 기자재 생산·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이거나 전북특별자치도에 최근 1년간 소재한 업체로 '24년 10월 25일에 최종 선정될 예정임
- 군산청 관계자들은 군산항 중량물 야적장 운영을 통하여 해상풍력 대형구조물을 제작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하고 이를 통해 항만 경쟁력 제고와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이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8, sygen@kmi.re.kr

15) 전북일보(2024.09.08.), https://www.jjan.kr/article/20240908580019(2024.09.23. 검색)

## 11) 마산항

### 1 행안부·해수부·경남도, 태풍 대비 마산항 재해 방지시설 합동 점검[16)]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경남도는 창원시 마산항과 신포지구 재해 방지시설을 점검함**

- 주요 방재시설인 차수벽과 방조문, 방재언덕 등을 확인하고, 항만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짐
-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송명달 해수부 차관, 천성봉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마산항에서 방재시설의 작동 현황을 확인한 후 순찰선 '바다가온호'에 승선해 항만시설을 직접 점검함

**경남도는 마산항 재해 취약지구 정비사업을 통해 재해 방지 대책을 강화할 예정임**

- 기후변화로 인한 폭풍해일 등에 대응하기 위해 '25년부터 5년에 걸쳐 마산항 재해 취약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며, 총사업비 584억 원을 투입해 방호벽과 방재언덕을 설치할 계획임
- 마산항 일대에 5,390m 길이의 상부 투명식 방호벽과 520m 길이의 잔교식 방재언덕이 설치될 예정으로, 해양 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프라가 강화됨

**신포지구 재해 예방 정비사업 현장도 함께 점검됨**

- 상습 침수지역으로 지정된 신포지구는 하천 정비, 배수펌프장 증설 등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27년까지 진행됨
- 정비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선제적 대응을 통해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됨
- 창원시는 '21년 신포지구를 침수위험지구로 지정하였고, '27년까지 하천 정비, 유역 분리 수로 설치, 재해 예·경보시스템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해 상습적인 침수 피해를 방지할 계획임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16) 경남신문(2024.09.01.), https://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440852(2024.09.23. 검색)

# 02 국외 항만 동향

## 1) 중국

### ① '24년 8월 수출 증가세가 견조, 그러나 수입 둔화로 무역 전망 우려[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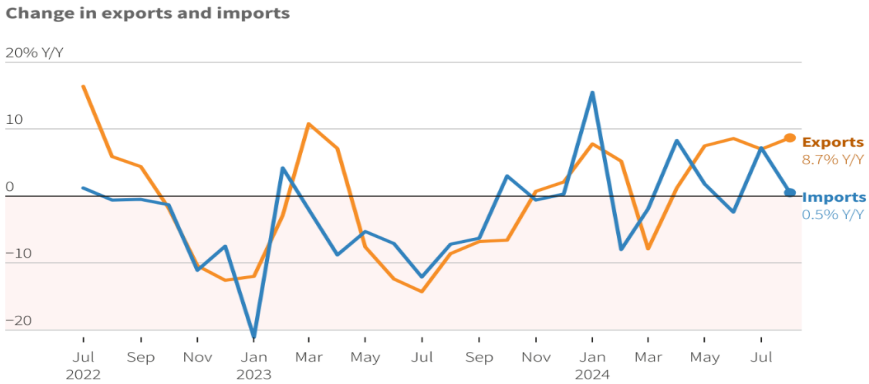
- **8월 중국의 수출은 1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중국 내 제조업체들이 더 많은 교역국들로부터 예상되는 관세 정책을 앞두고 물량을 빠르게 처리하고 있음을 시사함**
  - 중국의 8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8.7% 증가하였으며, 이는 '23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증가세이며, 로이터 경제학자들의 예측치인 6.5% 증가세를 넘어선 수치임
  - EU 및 캐나다에서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상, 인도의 중국산 철강 관세 인상 계획, 인도네시아의 중국산 섬유 수입에 대한 관세 인상 검토 등 무역장벽이 증가하면서 정책 개시 전 밀어내기로 인해 수출 증가세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수입은 같은 기간 0.5% 소폭 상승에 그쳐 예상치인 2% 전망을 밑돌았으며 7월 7.2% 증가에서 크게 둔화됨

- **중국 거시경제연구원은 강력한 수출 증가는 중국 3분기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나, 글로벌 경제 및 지정학적 불안 등으로 중국 수출은 많은 역풍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힘**
  - 특히 장기화된 부동산 침체와 9월 첫째 주에 발표된 설문조사 결과 공장 출하 가격이 14개월 만에 가장 낮게 나타남에 따라 생산자들이 구매자들을 찾기 위해 가격을 인하해서 물량을 처리하고 있음을 시사함
  - 중국 내 소비자들의 지출은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경제 성장을 하려는 경우 목표 성장률에 달성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밝힘

- **또한, 수입의 경우 대부분 전자 제품을 재수출하기 위한 부품 수입이 대부분으로 이러한 수입 둔화세가 향후 중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힘**

17) REUTERS(2024.09.10.), https://www.reuters.com/world/china/chinas-exports-top-forecasts-imports-disappoint-amid-depressed-domestic-demand-2024-09-10/ (2024.09.20. 검색)

**중국 수출입 전년 대비 증가율**




자료: REUTERS, https://www.reuters.com/world/china/chinas-exports-top-forecasts-imports-disappoint-amid-depressed-domestic-demand-2024-09-10/(2024.09.20. 검색)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 2 중국-아프리카 무역 협력 지속 성장[18)]

- **'21년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FOCAC)' 이후 중국과 아프리카 간의 무역 협력이 지속적 으로 성장하고 있음**
  - 중국은 15년 연속 아프리카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자리하고 있으며 '23년 기준 중국과 아프리카 간의 무역액은 2,821억 달러로 '21년 대비 약 11% 증가함
  - 또한,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의 직접 투자 규모 역시 400억 달러를 초과하여 아프리카 주요 외국인 투자원 중 하나가 됨

- **특히 중국과 프랑스 등이 협력하여 추진된 나이지리아의 레키 항구 프로젝트는 '20년 6월에 착공하여 '22년 10월에 완공됨[19)]**
  - '23년 4월 상업 운항을 시작한 이후 연간 120만 개의 컨테이너를 처리용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1만 5천 톤급의 컨테이너선 접안이 가능한 심해 항만임

- **한편, 중국은 '24년 9월에 열린 FOCAC 정상회담에서 아프리카에 대한 제도적 개방을 확대하고 공급망 협력을 심화하여 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 밝힘**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18) 신화통신(2024.08.20.), https://english.news.cn/20240821/60dec2387d75405cb5b391633385bc98/c.html(2024.09.20. 검색)
19) 신화통신(2024.02.02.) https://english.news.cn/20240202/2a333be9e60b49e19035be019644ff6e/c.html(2024.09.20. 검색)

## 2) 아시아

### 1 싱가포르항 Pasir Panjang Terminal, 야간 바지선 신규 운영[20)]

**싱가포르해양항만청(MPA)과 PSA 싱가포르는 야간 시간대를 최대한 활용하여 싱가포르항만에서 인근 항만으로 컨테이너를 운송하기 위해 야간 바지선을 신규 운영함**

- '24년 상반기에 싱가포르 항만에서 처리한 컨테이너 실적은 2,382만 TEU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6.1%나 증가함, 급증한 화물량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항의 자원 최적화를 통한 화물 처리시간 절감이 필요
- 이에 MPA는 최근 4개월 동안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30분까지 Pasir Panjang Terminal(PPT)에서 컨테이너 바지선을 시범 운행하였음
- 이전에는 PPT보다 교통량이 적은 Brani와 Keppel 터미널에서만 바지선의 야간 이동이 가능했으나 야간 시간대를 최대한 활용하여 PPT의 처리실적을 증가시키고 다른 터미널과의 연계성을 개선하여 PPT뿐 아니라 싱가포르 항만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실제로 야간 바지선 신규 운영을 통해 컨테이너 정박지의 평균대기 시간도 축소시켰는데 '24년 7월 기준, 싱가포르 항만의 평균대기 시간은 하루 미만으로 단축되었음

**이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8, sygen@kmi.re.kr

20) Safety4sea(2024.09.04.), https://safety4sea.com/singapore-port-enhances-efficiency-with-new-night-barge-operations/(2024.09.23. 검색)

## 2 일본, 아덴항에 500만 달러 규모 협정 체결[21)]

**유엔개발계획(UNDP)과 일본 정부는 예멘의 아덴항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500만 달러 규모의 협약을 체결함**

- UNDP는 170여 개의 국가들이 협력하여 빈곤, 불평등, 기후 변화의 불공정을 종식시키기 위한 유엔 기구임
- 이번 프로젝트는 항만의 해양 작업장 재건과 계류장 및 이동식 유지보수 작업장 도입을 포함하여 항만의 선박 처리 능력과 안전성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둠
- 아덴항은 예멘으로 들어오는 화물의 주요 관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상업적 및 인도주의적 지원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그러나 장기간의 분쟁 및 유지보수 부족으로 입항하는 선박을 처리할 수 있는 운영 능력이 제한되고 대기시간이 길어 효율성이 저하되었으나, 이번 협력을 통해 항만의 생산성 제고 및 무역 촉진이 기대됨

**김영훈** 전문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21) UNDP(2024.09.17.), https://www.undp.org/yemen/press-releases/undp-and-japan-sign-us5-million-agreement-increase-efficiency-port-aden(2024.09.23. 검색)

## 3 인도 주요 항만 파업 취소, 그러나 공급망 문제 여전[22)23)]

**인도 항만 노동자들은 새로운 임금협상에 합의함에 따라 8월 28일부터 예정했던 무기한 파업을 철회함**

- 인도 항만 노동자 연합은 임금 인상과 연금 혜택 등 복지를 요구하며, 8월 28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예고한 바 있음
- 인도 내 12개 주요 항만의 약 2만여 명의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6개의 노조 단체는 지난 27일 파업 개시일을 불과 하루 앞두고 새로운 임금협상에 합의하며 파업을 철회함
- 노조의 공동 성명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5년간 기본급 총액의 8.5% 인상에 합의하였으며, '22년 1월까지 소급하여 적용됨
- 이번 임금협상 합의로 인해 파업에 따른 무역 차질을 피할 수 있게 되어 현지 해운 및 물류 업계는 안도감을 표명함
- 다만, 국제 물류 및 컨테이너 부족 등의 공급망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으며, 수출업체들은 수출액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실제로 인도의 7월 수출액은 24~25년 회계연도 시작 이후 월별 증가세를 이어가다가 전년 동월 대비 약 1% 수준 감소함

**김영훈** 전문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22) Reuters(2024.08.19.), https://www.reuters.com/world/india/india-port-workers-go-strike-demand-better-wages-benefits-2024-08-19/(2024.08.20. 검색)
23) The LOADSTAR(2024.08.28.), https://theloadstar.com/strike-at-major-indian-ports-called-off-but-supply-chain-challenges-remain/(2024.09.20. 검색)

## 3) 미주

### 1 파나마 운하청, 새로운 수원 확보를 통한 가뭄 대비 추진[24)]

**작년과 올해, 가뭄에 따른 수량 부족으로 선박 병목 현상을 빚은 파나마 운하에 새로운 물길이 건설될 예정임**

- 세계 교역량의 4~5%를 처리하는 파나마 운하는 1950년 이후 최저 강수량을 기록하면서, '23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운영에 큰 차질이 발생함
- 이에 파나마 운하청(ACP)은 당국은 20억 달러(2조 6천억 원 상당)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파나마 운하에 물을 공급하는 가툰 호수 저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새로운 저수지 확보에 나섬
- 해수면 높이 차이가 있는 파나마 운하 특성상 갑문 사이에 물을 채우거나 빼면서 선박을 계단식으로 올리거나 내려야 하는데, 운하에 물을 공급하는 가툰 호수의 수량이 파나마 운하 운영의 결정적인 요소가 됨
- 앞서 파나마 대법원은 지난달 파나마 운하 인근 리오 인디오(인디오 강)에 댐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했으며, 댐 건설 관련 연구용역 등 18~24개월 정도의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강우 패턴과 엘니뇨·라니냐 기상현상 빈도를 고려할 때 향후 4년 이내에 다시 파나마 운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뭄이 올 것으로 예상되어 대책 마련이 필요함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24) 연합뉴스(2024.08.27.), https://www.yna.co.kr/view/AKR20240827005300087?input=1195m(2024.09.23. 검색)

## 2 미국 동부 항만 파업 위기 및 운임 증가 우려[25)]

**미국 동부 국제항만노동자협회(ILA)의 파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추가적인 운임상승 및 선복 부족 문제 발생 등 수출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 ILA는 사측의 40% 임금 상승안을 거부하고 77% 인상을 요구함에 따라 동부 및 멕시코만 항만의 파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에 큰 파장을 미칠 수 있음
- 미국 항만이 처리하는 해운 물동량은 중국에 이은 세계 2위 규모로 물류 흐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물류 지체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큼
- 파업 가능성에 대비해 일부 해운사들은 동부 선적 물량을 서부 항만으로 돌리면서 아시아-북미 항로 운임 상승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국내 수출 기업들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철강업계 등 일부는 벌크선 전환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님
- 당초 하반기 해상 운임은 중국발 공급 물량 감소와 컨테이너선 신조 인도량 증가로 안정세가 예상되었으나, 파업 등 돌발 변수로 인해 운임이 상승할 가능성이 존재함
- 수출 기업들은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북미 지역에 창고를 확보하고, 예상 물량을 미리 운송하는 등의 대안 검토와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함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25) 국민일보(2024.09.10.),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0509235&code=61141411&cp=nv(2024.09.23. 검색)

## 4) 유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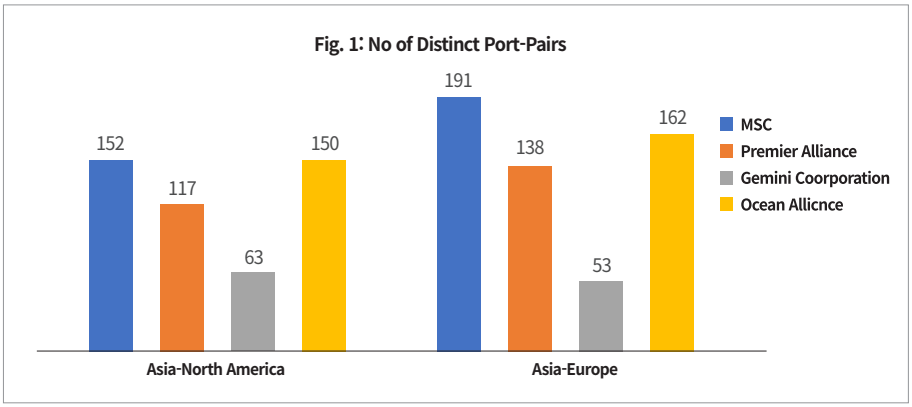
### 1 '25년 해운 네트워크 경쟁 전망[26)]

**해운 및 물류 시장 분석 기업 Sea-Intelligence는 '25년 아시아-북미 및 아시아-유럽 간 해운 네트워크의 경쟁 구도를 분석하여 발표함**

- Gemini Cooperation, Premier Alliance, MSC는 2025년 네트워크를 발표했으며, OCEAN Alliance는 아직 발표하지 않았으나 네트워크 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하여 분석함
- Sea-Intelligence는 각 얼라이언스가 제공하는 아시아-북미 및 아시아-유럽 간의 서로 다른 항만 연결 수를 분석했으며, 서로 다른 항만 연결은 여러 서비스에서 제공되더라도 한 번만 집계했다고 설명함
- Gemini는 아시아-유럽, 아시아-북미 노선에서 훨씬 적은 항만 연결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의도된 네트워크 설계 전략의 결과로, 이들은 셔틀 서비스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아시아-유럽 노선에서는 MSC가 가장 많은 항만 간 직항 연결을 제공하고, 그 뒤를 OCEAN Alliance와 Premier Alliance가 이었으며, 아시아-북미 노선에서는 MSC와 OCEAN Alliance가 비슷한 수준의 직항 연결을 제공하지만, OCEAN Alliance는 연결당 더 빈번한 호출 빈도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됨
- 아시아-유럽 노선에서 MSC는 Gemini보다 3.5배 많은 직항 연결을 제공해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며, 아시아-북미 노선에서는 MSC와 OCEAN Alliance 간의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분석됨

**조성현** 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얼라이언스별 노선별 항만 연결 비교**




자료: Sea-Intelligence(2024.09.17.), https://www.sea-intelligence.com/press-room/286-asia-nam-and-asia-europe-networks-impact-2025(2024.09.20. 검색)

26) Sea-Intelligence(2024.09.17.), https://www.sea-intelligence.com/press-room/286-asia-nam-and-asia-europe-networks-impact-2025(2024.09.20. 검색)

## 2 중부 및 동부 유럽, 홍수로 인해 물류 지연 발생[27)]

**중부 및 동유럽에서 발생한 심각한 홍수로 인해 항만 및 항만 배후 공급망인 철도, 도로 운송에 대규모 차질이 발생함**

- MSC는 인터모달 네트워크의 컨테이너 터미널이 홍수로 인해 운영 제한을 겪고 있다고 보고함
- 체코와 폴란드 국경 지역은 9월 중순 폭우로 인해 17명이 사망했으며, 일부 다리가 붕괴되는 등 운송에 차질을 겪음
- 헝가리는 메인 도로 14번에 있는 국경 다리를 폐쇄해 슬로바키아로의 도로 교통이 차단되었으며, 이 외에도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오스트리아, 독일 남부 바이에른주와 작센주에서 도로가 폐쇄됨
- 유럽 주요 철도 화물 운송 회사인 METRANS는 철도 교통이 심각하게 감소하거나 중단되었다고 알리며 홍수로 인한 영향을 경고함
- 글로벌 물류 회사인 Kuehne+Nagel은 오스트리아의 린츠와 크렘스를 경유하는 모든 항만으로 향하는 철도 서비스가 영향을 받았으며, 체코의 오스트라바를 경유하는 철도 터미널 접근 불가, 체코 북서부 우스티 나트 라벰 터미널이 폐쇄됨에 따라, 체코 내륙과 독일 항구를 연결하는 주요 철도, 도로, 수상 운송 경로에 심각한 지장이 생겼다고 밝힘

**조성현** 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27) The Load Star(2024.09.17.), https://theloadstar.com/severe-floods-cause-delay-and-disruption-across-central-and-east-europe/(2024.09.20. 검색)

## 5) 오세아니아

### 1 멜버른항, 대규모 확장 위한 부지 확보[28)]

**멜버른항은 빅토리아주 정부로부터 추가 부지를 임대하여 물류 체계 효율성을 높일 예정임**

- 멜버른항은 약 290,000㎡의 구 멜버른 시장 부지를 '66년까지 임대하며, 이번 확장은 '16년 항만 민영화 이후 최대 규모의 확장임
- 이 항만 부지를 장기적으로 활용하여 물류 효율성을 개선하고 공급망을 강화할 계획이며, 이는 빅토리아주 물류 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멜버른항은 이번 확장 부지 개발에 2억 호주 달러(약 1억 3,620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임**

- 멜버른항은 확장 부지에 트럭 주차장 및 컨테이너 저장소 등의 시설을 개발할 계획이며 이는 항만 주변 지역의 교통 혼잡을 줄이고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임
- 이 확장은 빅토리아주 정부의 '18년 빅토리아 물류 계획에 부합하며, 향후 멜버른항의 물동량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함

**멜버른항은 향후 컨테이너 물동량이 '50년까지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멜버른항은 추가 부지 확보가 빅토리아주의 미래 물류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필수적인 기회를 제공한다고 강조함
- 확장 부지를 통해 멜버른항은 미래의 물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빅토리아주 물류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28) Splash247(2024.08.30.), https://splash247.com/port-of-melbourne-secures-site-for-massive-expansion/(2024.09.19. 검색)

## 6) 아프리카

### 1 ICTSI와 트랜스넷, 더반항 컨테이너 터미널 개발 위해 25년 합작 투자 체결[29)]

**ICTSI는 트랜스넷과 합작하여 더반 컨테이너 터미널 2부두를 현대화하고 확장할 예정임**

- 국제 컨테이너 터미널 서비스사(ICTSI)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트랜스넷 포트 터미널(TPT)과 25년간의 합작 투자를 통해 더반 컨테이너 터미널 2부두의 운영 및 확장을 맡게 됨
- 이 프로젝트는 더반 항구의 물류 체계를 개선하고 남아프리카의 수출입을 촉진할 예정임
- 트랜스넷은 ’21년 8월, 글로벌 터미널 운영자들로부터 18개의 제안을 받았으며, 6개 업체가 최종 입찰에 참여한 결과 ICTSI가 파트너로 선정됨

**더반 컨테이너 터미널 2부두의 하역능력이 200만 TEU에서 280만 TEU로 증가할 예정임**

- 현재 더반 항구의 컨테이너 처리 용량 중 72%를 담당하는 2부두는 이번 현대화 작업을 통해 280만 TEU까지 확장될 계획임
- 이는 트랜스넷의 더반항 전체 하역능력을 330만 TEU에서 1,140만 TEU로 확장하려는 계획의 일환임
- 트랜스넷 국립 항만청은 더반항을 남아프리카의 주요 컨테이너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민간 부문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이에 따라 ICTSI의 글로벌 경험이 항만 운영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됨

**ICTSI와의 협력은 더반항의 글로벌 해운 라인 접근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

- 더반항 컨테이너 터미널은 이번 합작 투자로 물동량 증가와 운영 효율성 개선을 통해 글로벌 해운 라인과의 연결성을 확대하고, 상업적 성과를 높일 계획임
- 트랜스넷 그룹은 “2부두에 대한 민간 부문의 참여는 더반항을 컨테이너 허브로 재포지셔닝하는 중요한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ICTSI의 합류가 이 과정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힘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29) Seatrade Maritime(2024.08.27.), https://www.seatrade-maritime.com/terminals/ictsi-in-jv-with-transet-to-develop-durban-port-terminal(2024.09.18. 검색)

# 03 품목 및 산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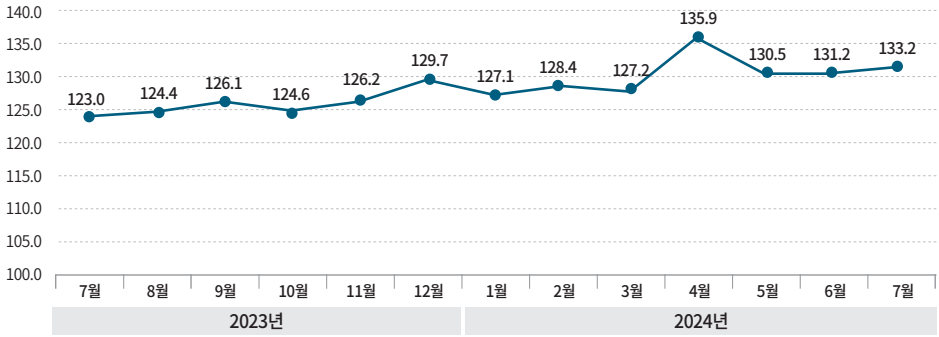
## 1) 컨테이너

### ① '24년 7월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전월 대비 1.5% 증가[30)]

**'24년 7월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지수는 전월 대비 1.5%, 전년 동월 대비 8.3% 증가한 133.2p를 기록함**

- 중국 항만에서의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실적이 150.3p로 전월 대비 1.9%, 전년 대비 9.5% 증가하면서 증가세를 견인함
- 유로존 북부와 독일 지역의 7월 항만물동량 지수(North Range Index)는 101.6p로 전월 대비 0.8% 하락하면서 3개월 연속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전환됨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처리지수




| 구분 | 2023년 | | | | | | 2024년 | | | | | | | 증가율(%) | |
|---|---|---|---|---|---|---|---|---|---|---|---|---|---|---|---|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전월 대비 | 전년 동월 대비 |
| Total | 123.0 | 124.4 | 126.1 | 124.6 | 126.2 | 129.7 | 127.1 | 128.4 | 127.2 | 135.9 | 130.5 | 131.2 | 133.2 | 1.5 | 8.3 |
| China Index | 137.3 | 139.1 | 138.7 | 135.9 | 138.3 | 145.6 | 141.7 | 139.1 | 137 | 161.6 | 144.9 | 147.5 | 150.3 | 1.9 | 9.5 |
| North Range Index | 98.4 | 97.5 | 96.6 | 96.6 | 94.6 | 96.7 | 87.5 | 99.9 | 101.7 | 101.4 | 102.2 | 102.4 | 101.6 | -0.8 | 3.3 |

주: 2015=100, 계절조정
자료: IISL, https://www.isl.org/index.php/en/services/rwiisl-container-throughput-input-index-0724(2024.08.20. 검색)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30) ISL(2024.08.29.), https://www.isl.org/index.php/en/services/rwiisl-container-throughput-input-index-0724(2024.09.20. 검색)

## 2 로이드 리스트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 항만 Top 100 발표[31)]

- **로이드 리스트는 '23년 처리실적을 기반으로 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항만 상위 100개 순위(Top 100)를 발표함**
  - '23년 전 세계 컨테이너 항만 물동량은 2년 연속 물동량 증가세가 둔화된 해였으며, 전년 대비 0.8% 소폭 증가한 6억 9,030만 TEU를 기록함
  - 이는 '22년 증가세인 1.7%에 비해 하락하였으며, 코로나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음

- **'23년에도 지역 및 국가별로 물동량 증가세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성장의 주된 비중은 중국과 중동 지역의 항만에 집중됨**
  - 중국은 '23년 초 코로나19 팬데믹의 국경 제한 조치가 완전히 해제되면서 무역활동이 활발해졌으며, 계속해서 안정적인 성과를 나타냄
  - 중동 대부분의 지역에서 물동량 성장이 나타났으며, 특히 주요 석유 수출국들의 경제 다각화를 위한 노력이 컨테이너 무역으로 나타나면서 크게 증가함
  - 반면, 미국의 경우 팬데믹에 따른 화물 수요 급감 및 재고 과잉으로 물동량이 대부분 감소하였으며, 유럽 역시 인플레이션 압박, 높은 금리,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물동량이 감소했음

- **한편, 국내 부산항의 경우 전년 대비 4.4% 증가한 2,303만 6천 TEU를 기록하면서 세계 컨테이너 처리 항만 7위를 기록함**

31) Lloyd's List(2024.08.16.), https://www.lloydslist.com/one-hundred-container-ports-2024(2024.09.20. 검색)

**컨테이너 물동량 Top 20 항만(2023년)**

| 순위 | 항만 | 국가 | 물동량 (천TEU) | 순위 | 항만 | 국가 | 물동량 (천TEU) |
|---|---|---|---|---|---|---|---|
| 1 | 상하이 | 중국 | 49,158 | 11 | 포트클랑 | 말레이시아 | 14,061 |
| 2 | 싱가포르 | 싱가포르 | 39,010 | 12 | 로테르담 | 네덜란드 | 13,447 |
| 3 | 닝보-저우산 | 중국 | 35,301 | 13 | 샤먼 | 중국 | 12,554 |
| 4 | 선전 | 중국 | 29,880 | 14 | 앤트워프-브뤼헤 | 벨기에 | 12,500 |
| 5 | 칭다오 | 중국 | 28,770 | 15 | 탄중펠레파스 | 말레이시아 | 10,481 |
| 6 | 광저우 | 중국 | 25,414 | 16 | 램차방 | 태국 | 8,868 |
| 7 | 부산 | 대한민국 | 23,036 | 17 | 가오슝 | 대만 | 8,834 |
| 8 | 톈진 | 중국 | 22,187 | 18 | LA | 미국 | 8,635 |
| 9 | 두바이 | 아랍에미리트 | 14,472 | 19 | 탕헤르메드 | 모로코 | 8,614 |
| 10 | 홍콩 | 중국 | 14,401 | 20 | 타이창 | 중국 | 8,039 |

자료: Lloyd's List(2023.08.16.), https://www.lloydslist.com/one-hundred-container-ports-2024(2024.09.20. 검색)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 2) 양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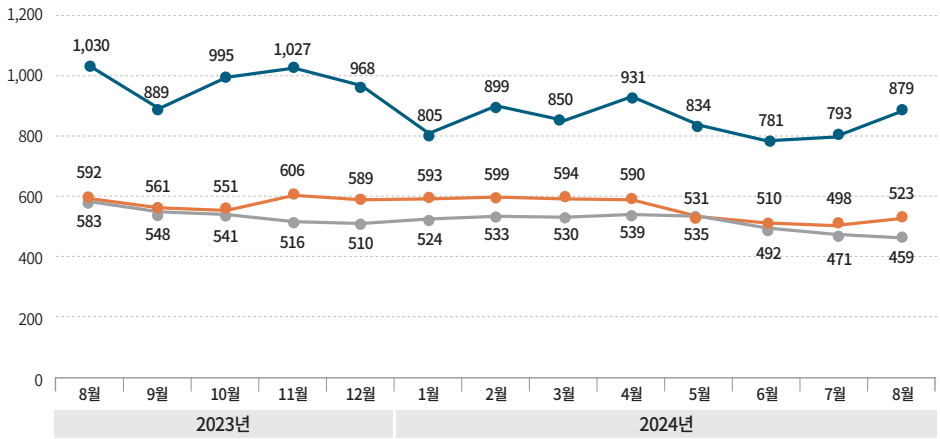
### 1 '24년 8월 사료용 밀과 식용 옥수수·콩의 수입단가 전월 대비 소폭 증가, 반면 식용 밀과 사료용 콩의 수입단가 감소[32)]

- **8월 사료용 밀의 수입단가와 식용 옥수수의 수입 단가는 각각 톤당 269달러, 263달러로 전월 대비 모두 2.7% 증가함**
  - 8월 식용 콩의 수입단가는 전월 대비 큰 폭(10.8%)으로 증가한 톤당 879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14.7% 감소한 단가임

- **식용 밀의 수입단가는 톤당 297달러로 전월 대비 5.7% 감소하였으며 사료용 콩(대두박)의 경우 전월 대비 2.5% 감소한 톤당 459달러를 기록함**

**콩 곡종별 수입단가 추이**

(단위: 달러/톤)




**밀과 옥수수 수입단가 추이**

(단위: 달러/톤)

| 구분 | | 2023년 | | | | | 2024년 | | | | | | | | 증가율(%) | |
|---|---|---|---|---|---|---|---|---|---|---|---|---|---|---|---|---|
| |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전월 대비 | 전년 동월 대비 |
| 밀 | 제분 | 355 | 347 | 324 | 336 | 328 | 341 | 335 | 334 | 331 | 319 | 324 | 315 | 297 | -5.7 | -16.3 |
| | 사료용 | 342 | 329 | 308 | 292 | 277 | 274 | 274 | 275 | 273 | 276 | 277 | 262 | 269 | 2.7 | -21.3 |
| 옥수수 | 제분 | 300 | 305 | 289 | 276 | 276 | 292 | 267 | 272 | 276 | 258 | 277 | 256 | 263 | 2.7 | -12.3 |
| | 사료용 | 321 | 305 | 284 | 263 | 252 | 258 | 258 | 257 | 258 | 260 | 251 | 246 | 246 | 0.0 | -23.4 |

**이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8, sygen@kmi.re.kr

3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곡물 관측월보(2024.09.02.), http://www.krei.re.kr:18181/board/market_trande/view/wr_id/7847/page/1(2024.09.23. 검색)

## 2 미국 곡물작황 실사결과, 콩 수확량 역대 최대 수준 기록 전망[33)]

- **미국 농업시장 분석 전문기간인 Pro Farmer는 매년 작황실사(Crop Tour)를 통해 곡종별 수확량 추정치를 발표함**
  - Pro Farmer는 美 중서부 7개 주(일리노이, 인디애나, 아이오와, 미네소타, 네브라스카, 오하이오, 사우스 다코다)의 실측 데이터(2,000~3,000개 필지 샘플링)를 바탕으로 수확량을 산출함
  - 표본농가의 객관적 수확량 조사와 약 14,200여 명의 농장 운영자조사(전화, 우편, 인터넷 등)를 병행하여 생산량 전망치를 발표함

- **'24년 8월 19일~22일 실시된 2024/25년도 곡물 작황 실사결과 콩 수확량은 미국 농무부(USDA)가 예상한 에이커(ac)당 53.2부셸(Bushel)을 상회하는 54.9부셸로 역대 최대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이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8, sygen@kmi.re.kr

3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곡물 관측월보 p.19(2024.09.02.), http://www.krei.re.kr:18181/board/market_trande/view/wr_id/7847/page/1(2024.09.23.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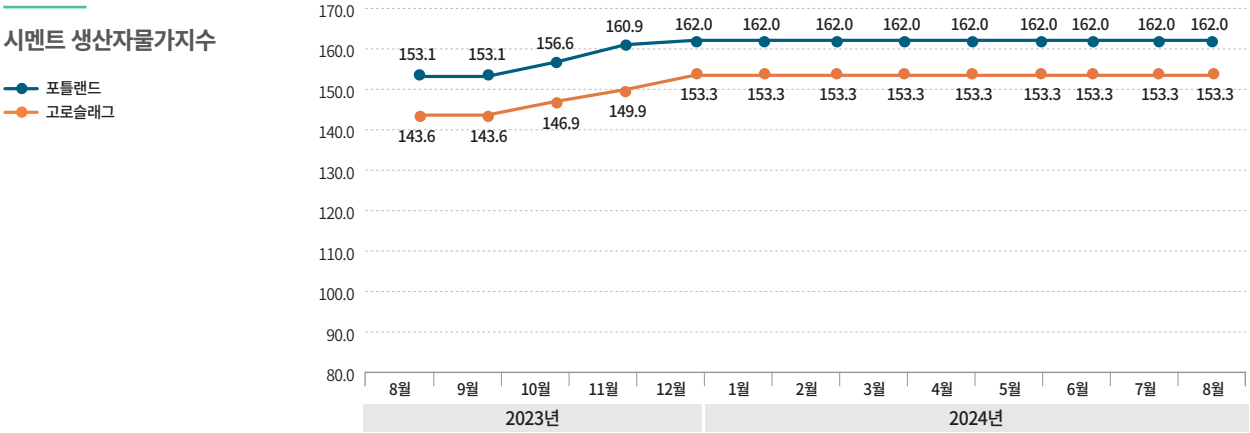
## 3) 시멘트

### 1 8월 시멘트 생산자물가지수 보합세 지속

- **'24년 8월 포틀랜드 및 고로슬래그 시멘트의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과 동일한 162.0p 및 153.3p를 기록함**
  - 포틀랜드 시멘트는 전년 동월 대비 5.8% 증가, 고로슬래그 시멘트는 6.7% 증가함
  - 포틀랜드와 고로슬래그 시멘트의 생산자물가지수는 '23년 9월 이후 소폭 증가세를 나타냈으나 '23년 12월에 이후 변동 없이 9개월간 보합세를 나타냄

(단위: 2020년 = 100 기준)

시멘트 생산자물가지수




| 구분 | 2023년 | | | | | 2024년 | | | | | | | | 증가율(%) | |
|---|---|---|---|---|---|---|---|---|---|---|---|---|---|---|---|
|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전월 대비 | 전년 동월 대비 |
| 포틀랜드 | 153.1 | 153.1 | 156.6 | 160.9 | 162.0 | 162.0 | 162.0 | 162.0 | 162.0 | 162.0 | 162.0 | 162.0 | 162.0 | 0.0 | 5.8 |
| 고로슬래그 | 143.6 | 143.6 | 146.9 | 149.9 | 153.3 | 153.3 | 153.3 | 153.3 | 153.3 | 153.3 | 153.3 | 153.3 | 153.3 | 0.0 | 6.7 |

자료: 국가통계포털 생산자물가지수(원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conn_path=I2(2024.09.24. 검색)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 2 정부, 시멘트 가격 인하 위해 중국산 수입 검토[34)]

**국내 시멘트 가격이 원자재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승하자, 정부는 가격 안정화와 경쟁 촉진을 위해 '26년부터 중국산 시멘트 수입을 검토하고 있음**

- 현재 국내 시멘트 시장은 5개 주요 업체가 과점 체제를 형성하고 있어, 가격 결정권이 일부 업체에 집중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중국산 시멘트 수입을 검토함
-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주도한 간담회에서 시멘트 가격 문제와 관련해 수입 비축 방안을 논의했으며, 국내 시장을 자극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국산 시멘트 수입을 제안, 이는 가격 인하를 위한 압박 수단으로 해석되고 있음

**국내 시멘트업계는 전기료 상승과 환경 설비 투자 부담을 이유로 가격 인하가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음**

- 시멘트업계는 유연탄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전기료 인상과 정부의 탄소 저감 정책으로 인한 환경 설비 투자비용 증가로 인해 가격 인하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음
- 환경 관련 설비 도입은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생산 비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
- 유연탄 가격이 절반 가까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료 인상과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환경 설비 도입으로 시멘트 업체들은 가격을 내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는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

**중국산 시멘트가 국내 시장에 진입할 경우, 국가 기간산업인 시멘트 산업의 붕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특히, 중국 시멘트업계는 생산 과정에서 독성 물질을 연료로 사용한다는 의혹이 있어, 국민 안전과 환경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
- 중국의 대표적인 시멘트 회사인 콘치(Conch)는 대량으로 폐기되는 독성물질을 소성로에서 연소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어, 이러한 제품의 도입이 주거 안전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됨
- 또한, 중국산 시멘트가 국내 시장에 본격적으로 유입되면 국내 시멘트업계가 경쟁력을 상실할 위험이 있음

34) 한국경제(2024.09.19.),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91953891(2024.09.19. 검색)

**국내 건설경기가 둔화되면서 올해 상반기 시멘트 출하량은 약 12% 감소했고, 이에 따라 재고는 약 16% 증가하고 있음**

- 이는 시멘트업계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경기 회복 시까지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건설 경기 침체의 여파로 시멘트 출하량이 크게 감소했고, 재고가 쌓이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시멘트업계는 이러한 상황이 가격 하락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하면서도, 중국산 시멘트 도입으로 인한 추가적 타격을 우려하고 있음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 4) 모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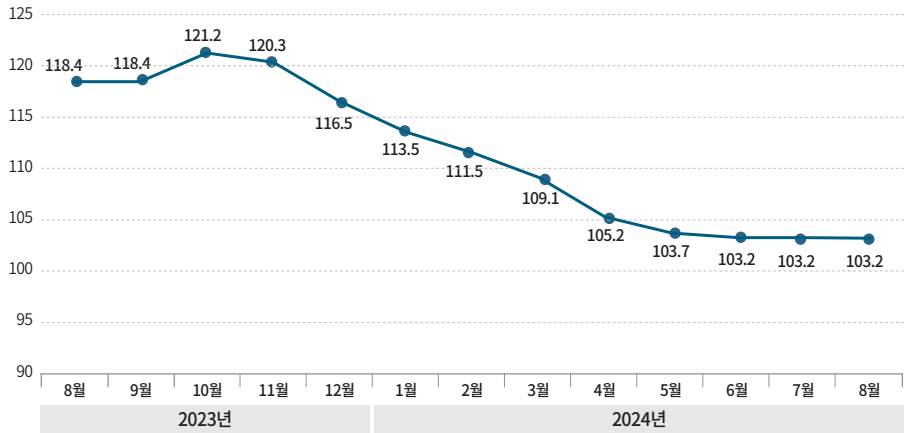
### 1 8월 생산자물가지수 103.2p 기록, ’23년 6월 이후 보합세

**’24년 8월 모래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과 동일, 전년 동월 대비 12.8% 감소함**

- ’22년부터 ’23년 10월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 생산자물가지수가 ’23년 11월 이후 꾸준한 감소세를 보였으나 최근 3개월간 변화 없이 보합세를 보임

모래 생산자물가지수

(단위: 2020년 = 100 기준)




| 구분 | 2023년 | | | | | 2024년 | | | | | | | | 증가율(%) | |
|---|---|---|---|---|---|---|---|---|---|---|---|---|---|---|---|
|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전월 대비 | 전년 동월 대비 |
| 모래 | 118.4 | 118.4 | 121.2 | 120.3 | 116.5 | 113.5 | 111.5 | 109.1 | 105.2 | 103.7 | 103.2 | 103.2 | 103.2 | 0.0 | -12.8 |

자료: 국가통계포털 생산자물가지수(원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conn_path=I2(2024.09.24. 검색)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 2 국토교통부, 골재 수급 불안 해소 위한 규제 완화 대책 검토[35)]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건설 현장의 자재비 인하를 위해 골재 수급 대책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임**

- 국토부는 이달 말 골재를 포함한 건설자재의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가격 안정화를 목표로 하는 대책을 발표할 계획임
- 골재는 아파트 건설 등 주요 인프라에 필수적인 자재로, 수급 불안이 가격 인상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왔음
- '17년 이후 바다골재 공급 제한으로 공급 실적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골재 가격이 급등했으며, 이는 건설비 상승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음
- 최근 가격이 소폭 하락했으나, 수급 제한이 지속되는 한 가격 상승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함

**국토부는 골재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 중임**

- 국토부는 바다골재 공급을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하거나 대체 공급원을 확보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골재 공급의 안정성을 회복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이 대책은 건설 산업의 원활한 자재 수급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로 여겨짐
- 현재 바다골재는 전체 골재 수요의 5%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공급 실적이 감소함에 따라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이 발생했음
- 국토부는 골재 수급 규제를 풀어 수급 안정을 도모하려고 함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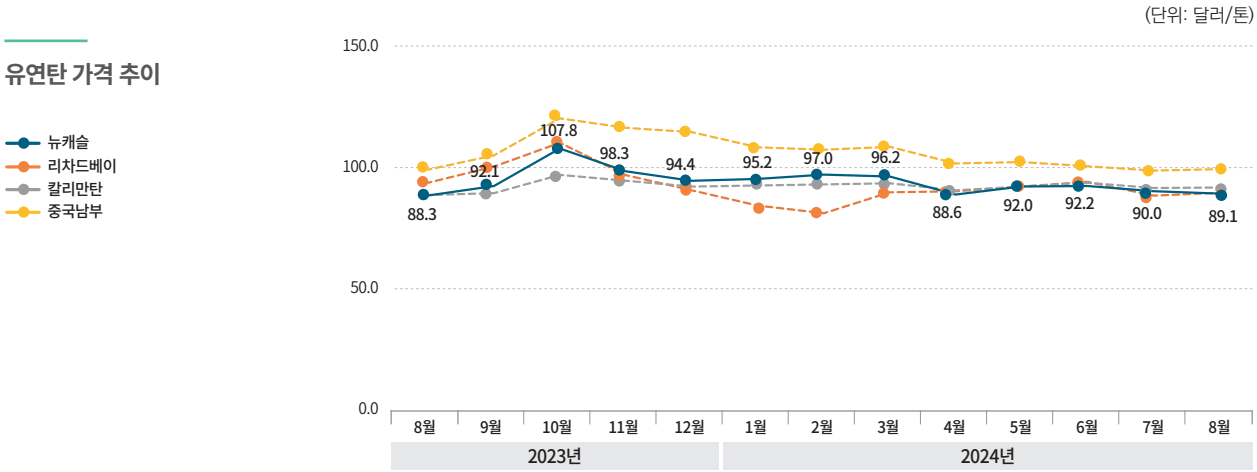
35) 대한경제(2024.09.19.), 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409131424491010587(2024.09.20. 검색)

## 5) 석탄

### ① '24년 8월 유연탄 가격은 전월 대비 소폭 감소

- **호주 뉴캐슬산(5,500kcal/kg, NAR) FOB 기준 연료탄 8월 평균가는 톤당 89.1달러로 전월 대비 1.0% 감소함**
  - 지역별로는 호주 뉴캐슬산을 제외한 남아공 리차드베이산과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산, 중국 남부 유연탄 가격은 각각 1.3%, 0.1%, 0.8% 증가함(전월 대비 기준)

**유연탄 가격 추이**




| 구분 | 2023년 | | | | | 2024년 | | | | | | | | 증가율(%) | |
|---|---|---|---|---|---|---|---|---|---|---|---|---|---|---|---|
|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전월 대비 | 전년 동월 대비 |
| 뉴캐슬 | 88.3 | 92.1 | 107.8 | 98.3 | 94.4 | 95.2 | 97.0 | 96.2 | 88.6 | 92.0 | 92.2 | 90.0 | 89.1 | -1.0 | 0.9 |
| 리차드베이 | 93.6 | 100.2 | 110.1 | 96.7 | 89.7 | 84.1 | 81.0 | 89.6 | 90.1 | 92.4 | 93.9 | 88.3 | 89.5 | 1.3 | -4.5 |
| 칼리만탄 | 88.5 | 89.2 | 96.9 | 94.5 | 91.9 | 92.6 | 92.7 | 93.3 | 90.4 | 92.4 | 93.7 | 91.5 | 91.6 | 0.1 | 3.5 |
| 중국남부 | 98.8 | 104.9 | 120.1 | 116.3 | 114.5 | 108.1 | 107.2 | 108.4 | 101.5 | 102.0 | 99.7 | 98.4 | 99.2 | 0.8 | 0.4 |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https://www.komis.or.kr/komis/price/mineralprice/ironoreenergy/pricetrend/ironOreEnergy.do (2024.09.24. 검색)

**김영훈** 전문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 2 동남아 석탄 수입량 '30년까지 연평균 3%씩 증가 전망[36)]

- **세계 최대 석탄 소비국인 중국의 수요가 정점에 가까워지면서 향후 10년간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석탄 수입과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지난 8일 아시아의 주요 석탄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시아 석탄 콘퍼런스(Coaltrans Asia)가 개최되었으며, 글로벌 석탄 무역 지형의 변화에 대한 업계 종사자 간의 논의가 있었음
  - 해당 콘퍼런스에서 인도네시아의 석탄광부협회(ICMA)는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들의 연간 석탄 수입량이 '23년 1억 4,090만 톤에서 '30년 1억 7,090만 톤으로 연평균 약 3% 수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특히 경제성장이 빠른 베트남이 가장 유망한 석탄 시장으로 대두되었는데, 베트남의 국영 석탄채굴업체 관계자는 '35년 베트남의 석탄 수입량이 연간 8,600만 톤으로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체 소비량의 약 70~75%가 전력 생산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힘
  -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추가 건설하지는 않지만, 기존 발전소의 가동률을 높이고 있는 상황임
  - 말레이시아의 경우 데이터센터로 인해 석탄화력발전을 늘리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늘어나는 배터리와 전기차 수요에 대응하고자 니켈 제련소의 가동에 필요한 석탄화력발전을 확대하고 있음

- **한편, 로이터 통신은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는 중동 지역을 제외하고 아시아에서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가장 낮으며, 선진국들의 자금 지원 부족으로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지가 지연되고 있다고 해석함**

**김영훈** 전문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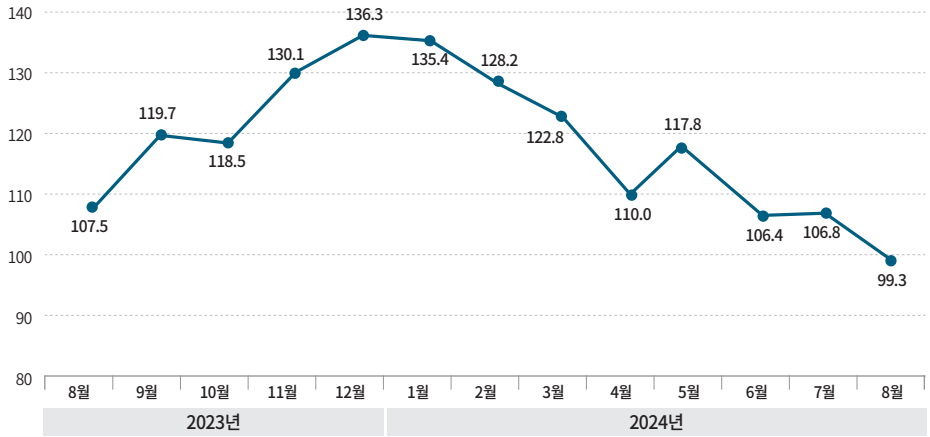
36) IMPACT ON(2024.09.13.),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2569(2024.09.20. 검색)

## 6) 철광석

### ① '24년 8월 철광석 가격 전년 동월 대비 7.7% 감소한 99.3달러 기록

- **'24년 8월 철광석 가격(Fe 62%, 중국 칭다오항 도착기준)은 톤당 99.3달러로 전월 대비 7.0%, 전년 동월 대비 7.7% 하락함**
  - 철강 시장 불황과 향후 공급 우려 증가로 인해 '22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톤당 90달러 수준으로 하락함
  - 중국의 조강생산량 감소 및 9월 중국 연휴(중추절)의 영향으로 9월에도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철광석 가격 추이




| 구분 | 2023년 | | | | | 2024년 | | | | | | | | 증가율(%) | |
|---|---|---|---|---|---|---|---|---|---|---|---|---|---|---|---|
|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전월 대비 | 전년 동월 대비 |
| 철광석 | 107.5 | 119.7 | 118.5 | 130.1 | 136.3 | 135.4 | 128.2 | 122.8 | 110.0 | 117.8 | 106.4 | 106.8 | 99.3 | -7.0 | -7.7 |

주: 62% 분광 중국 칭다오항 도착 기준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https://www.komis.or.kr/komis/price/mineralprice/ironoreenergy/pricetrend/ironOreEnergy.do (2024.09.20. 검색)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 2 철광석 가격 80달러 수준으로 하락 우려 증가[37)]

- **철광석 가격이 지난 '22년 이후 처음으로 90달러 수준으로 떨어진 가운데 추가 하락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중국의 수요 부진과 글로벌 성장에 대한 우려가 원자재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면서 추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임
  -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부족하고 장기적인 부동산 침체로 인해 철강 소비가 감소하면서 철광석 시장은 공급 과잉에 시달리고 있음
  - 또한, 다가오는 미대선과 도널드 트럼프의 무역 전쟁 재개 위험이 중국이 더 강력한 정책 대응을 늦추도록 자극하고 있어, 실제 중국의 근원 인플레이션은 최근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수요 약화 조짐을 나타내고 있음

- **골드만삭스는 이러한 중국의 더딘 수요 회복세와 과잉 공급 등의 영향으로 '24년 4분기 철광석 가격은 톤당 85달러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며, 이는 지난 전망 대비 약 15달러 하향 조정된 수치임[38)]**
  - 다만, 일반적으로 여름철이 지나면 철강 구매가 회복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건설 시즌의 도래 및 계절적 재입고가 이어지면 어느 정도 철광석 가격을 지지할 수도 있다고 밝힘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37) THE GURU(2024.09.10.), https://www.theguru.co.kr/news/article.html?no=77134(2024.09.20. 검색)
38) GMK center(2024.09.18.), https://gmk.center/en/news/goldman-sachs-lowered-its-iron-ore-price-forecast-for-the-fourth-quarter-to-85-t/(2024.09.20.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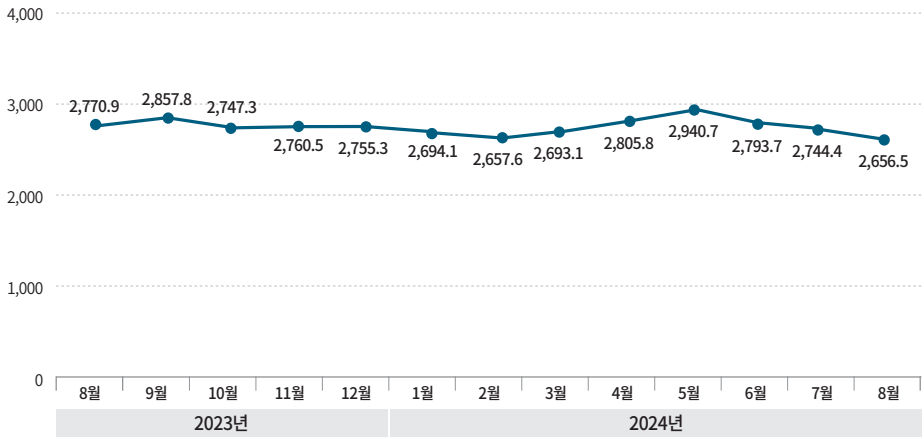
## 7) 기타광석

광물종합지수 추이

### 1 8월 광물종합지수는 2,656.5p로 전월 대비 3.2% 감소

- '24년 8월 광물종합지수는 전월 대비 3.2% 감소하였으며, 전년 동월(2,744.4p) 대비 4.1% 감소한 2,656.5p를 기록함

(단위: 2016년 = 1,000 기준)




| 구분 | 2023년 | | | | | 2024년 | | | | | | | | 증가율(%) | |
|---|---|---|---|---|---|---|---|---|---|---|---|---|---|---|---|
|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전월 대비 | 전년 동월 대비 |
| 광물종합지수 | 2,770.9 | 2,857.8 | 2,747.3 | 2,760.5 | 2,755.3 | 2,694.1 | 2,657.6 | 2,693.1 | 2,805.8 | 2,940.7 | 2,793.7 | 2,744.4 | 2,656.5 | -3.2 | -4.1 |

주: 광물종합지수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전반적인 자원시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국내 수입금액 20위권 이내 광종 중 산업전략적 중요광물(동, 니켈, 아연, 리튬 등) 15개를 선정하여 자체 개발한 종합지수로서, 기준시점은 2016년 1월을 1,000으로 함. 매일 발표하며 월별 실적은 일별 데이터의 평균값을 산출함.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https://www.komis.or.kr/komis/price/priceStocks/pricestocks/priceStocks.do(2024.09.24. 검색)

**김영훈** 전문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 2 중국 희귀광물 자원수출 무기화 위협[39)]

- **중국이 세계 공급망에서 자국이 장악하고 있는 광물자원의 수출 통제를 무기로 활용하거나 특정 기업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 美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대중국 규제 강화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중국이 광물자원을 앞세워 무역전을 대비하고 있음
  -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일본 반도체 장비기업 도쿄 일렉트론 등에 대중국 수출 통제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데, 중국이 일본에 '미국 반도체 수출 통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시 강력한 수준의 경제보복'을 예고하였다고 보도함
  - 이는 일본이 중국에 국내산 반도체 장비 수출을 제한할 경우, 중국은 광물 수출을 막아 도요타 등 일본 완성차 산업까지 타격을 주겠다는 의미임
  - 지난 '10년에도 중국은 일본과 센카쿠 열도 영유권 갈등으로 전자산업에 핵심적인 광물인 희토류 수출을 일시 중단하여 일본 제조업 전반에 위협을 가한 바 있음
  - 우리나라도 중국에 대한 핵심 광물 의존도가 높은 만큼, 중국의 '자원 무기화' 보복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임

**김영훈** 전문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39) 동아일보(2024.09.09.),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40909/130005900/2(2024.09.20. 검색)

## 8) 목재

### 1 '24년 1~7월 누적 원목 수입량은 95만 4천 ㎥로 전년 동기 대비 24.8% 감소

- **국내 수요 부진으로 원목 수입이 감소하나, 목질판넬류는 국내 기본 공급 부족으로 증가하였음**
  - 제재목 및 성형목재의 누적 수입량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4.4%, 0.3% 감소했으나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및 목재펠릿 수입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8.8%, 22.3%, 41.0% 및 5.8% 증가함

- **중국을 비롯한 세계적인 건설경기 부진으로 목재 수요감소로 가격이 하락 또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동지역의 분쟁으로 해상운임이 상승하여 수입 가격의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음**

**국내 목재 품목별 수입현황**

| 품목(단위) | 2024년 누적 (1-7월) | 2023년 누적 (1-7월) | 증감률(%) |
|---|---|---|---|
| 원목(천㎥) | 954 | 1,268 | -24.8 |
| 제재목(천㎥) | 908 | 950 | -4.4 |
| 성형목재(톤) | 47,128 | 47,252 | -0.3 |
| 합판(천㎥) | 820 | 754 | +8.8 |
| 파티클보드(천㎥) | 850 | 695 | +22.3 |
| 섬유판(천㎥) | 189 | 134 | +41.0 |
| 목재펠릿(천 톤) | 2,257 | 2,133 | +5.8 |

자료: 산림청 해외목재유통정보(2024.08.22.), https://www.forest.go.kr/kfsweb/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3199296&bbsId=BBSMSTR_1067&pageIndex=1&pageUnit=10&searchtitle=title&search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dept=&searchWrd=&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orgId=&mn=AR01_04_02_03&component=(2024.09.19. 검색)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 2 산림청, 공공건축 50% 목조 적용 의무화 추진법 개정 착수[40)]

**산림청은 공공건축물의 50% 이상을 목조로 적용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임**

- 이를 통해 국내 목재산업 활성화와 친환경 건축 자재 사용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
- 또한, 민간 건축물에 대해선 지원금과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목조건축을 장려할 방침임
- 공공부문에서 시작해 목조건축을 확산하고자 학교 등에서 국산 목재 사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며, 민간 분야에서도 자발적인 목조건축 건설 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임

**산림청은 목조건축 활성화를 저해하는 기존 철근·콘크리트 위주의 법규를 개선하고, 층간소음 규정 등 목조 건축에 적합한 규정을 새롭게 마련 중임**

- 이를 통해 목조건축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법·제도 개정을 가속화할 계획임
- 기존 주택건설기준의 콘크리트 바닥구조 규제를 개선한 바 있으며, 이번에 층간소음 규정까지 극복함으로써 7층 이상의 목조건축 가능성을 확보함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림청은 경제림육성단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목재 생산에서 가공까지의 운송·유통체계를 혁신할 계획임**

- 이를 통해 자급률을 높이고 목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며 목재 생산 및 운반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목재가 효율적으로 가공시설까지 전달되도록 하며, 국산 목재 사용을 확대할 계획임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40) 대한경제(2024.09.11.), 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409091714242320605(2024.09.20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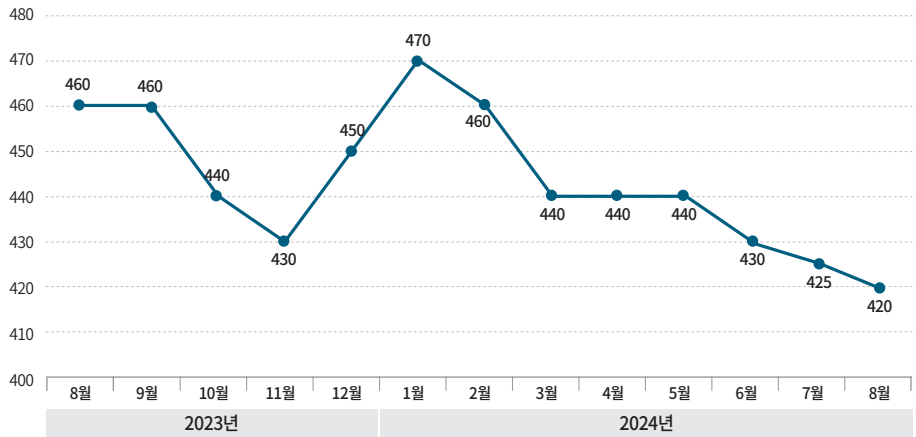
## 9) 고철

### 1 국내 고철 가격 하락

- **국내 8월 생철 가격은 전월 대비 1.2% 하락한 톤당 42만 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동월 대비 8.7% 하락한 수준임**
  - '24년 1월까지 2개월 연속 상승하여 톤당 47만 원을 기록했던 고철 가격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보합세를 기록하고 있음

**고철(생철) 연간 가격 추이**

(단위: 천 원/톤)




| 구분 | 2023년 | | | | | 2024년 | | | | | | | | 증가율(%) | |
|---|---|---|---|---|---|---|---|---|---|---|---|---|---|---|---|
|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전월 대비 | 전년 동월 대비 |
| 생철 | 460 | 460 | 440 | 430 | 450 | 470 | 460 | 440 | 440 | 440 | 430 | 425 | 420 | -1.2 | -8.7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가격정보(2024.09.23.), https://www.motie.go.kr/kor/contents/103(2024.09.24. 검색)

**조성현** 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 2 글로벌 고철 가격 소폭 반등[41)]

**글로벌 고철 가격의 선행 지표인 튀르키예 고철 가격이 4주 연속 하락 후 8월 넷째 주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앞서 7월 초부터 꾸준히 390달러(CFR)에서 보합을 유지하던 튀르키예 고철 가격은 월말부터 떨어지기 시작해 8월 셋째 주까지 4주 연속 하락하여, 이 기간 총 약 30달러 하락함
- 8월 저가 중국산 빌릿으로 튀르키예 고철 가격은 꾸준히 하방 압력을 받았으나, 최근 중국 시황 개선으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분석됨
- 그러나 제품 수요가 더딘 가운데 중국 시황 개선이 일시적이라는 평가가 이어져, 가격의 상승세가 이어질지는 불확실한 상황인 것으로 판단됨
- 반면 일본 시장은 9월 초 약세 전망과 함께 추가 하락하며 2년 내 최저치를 기록함

**조성현** 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41) 철강금속신문(2024.09.04.), http://pdf.snmnews.com/PDF/REAL/2024/09/04/PS010904010100301B0001.pdf(2024.09.20.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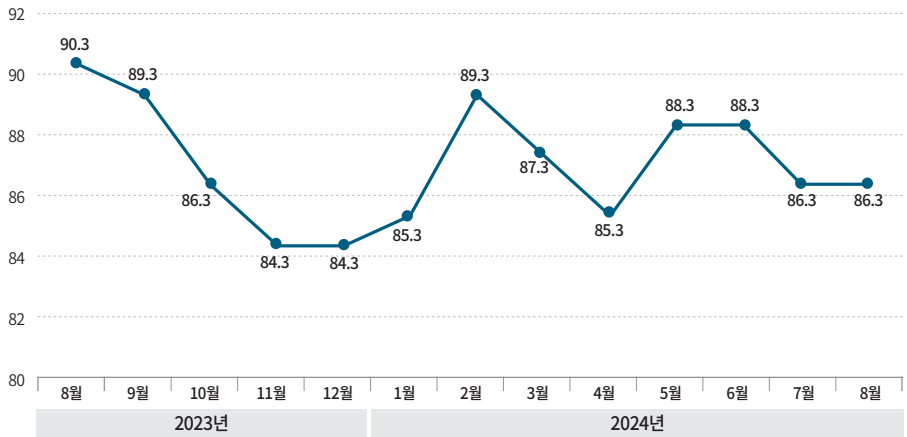
## 10) 철재

### 1 국내 열연코일 가격 약보합세

- **8월 열연코일(3.0×4×8mm) 가격은 전월과 동일하게 86만 3천 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동월 대비 4.4% 하락한 수준임**
  - ’23년 5월까지 톤당 108만 원대를 기록했던 열연코일 가격은 ’23년 6월부터 급격히 하락하여 ’23년 7월부터 꾸준히 톤당 80만 원~90만 원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음

**열연코일 연간 가격 추이**

(단위: 만 원/톤)




| 구분 | 2023년 | | | | | 2024년 | | | | | | | | 증가율(%) | |
|---|---|---|---|---|---|---|---|---|---|---|---|---|---|---|---|
|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전월 대비 | 전년 동월 대비 |
| 열연코일 | 90.3 | 89.3 | 86.3 | 84.3 | 84.3 | 85.3 | 89.3 | 87.3 | 85.3 | 88.3 | 88.3 | 86.3 | 86.3 | 0.0 | -4.4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가격정보(2024.09.23.), https://www.motie.go.kr/kor/contents/103(2024.09.24. 검색)

**조성현** 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 2 국내 열연강판 유통가격 하락[42)]

- **중국발 저가 철강재 유입이 본격화되기 이전이지만, 향후 가격 하락을 우려한 유통사들이 기존 대비 낮은 가격에 물량을 판매하며 국내 철강 유통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함**
  - 9월 하순 이후 국내로 유입되는 중국산 열연강판 수입원가는 최저 가격 기준 60만 원 초반으로 추정돼 9월 중순 기준 수입산 열연강판 유통가격 대비 최대 10만 원가량 낮음
  - 계절적 성수기 진입을 앞두고 있으나, 열연강판 유통가격은 8월 하순부터 하락을 거듭하고 있으며, 9월 둘째 주 기준 수입대응재(GS강종) 유통가격은 톤당 70만 원 초반까지 하락하여 2주 내 톤당 4만 원 하락한 것으로 확인됨
  - 이에 국내 철강 제조업계는 열연강판 유통가격의 과도한 하락을 막고 시장 질서를 세우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분석됨

**조성현** 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42) 철강금속신문(2024.09.04.), http://pdf.snmnews.com/PDF/REAL/2024/09/04/PS010904010100301B0001.pdf(2024.09.20. 검색)

## 11) 자동차

### 1 '24년 7월 국내 자동차산업, 전월 대비 내수·수출·생산 모두 감소[43)]

**7월 내수는 전월 대비 4.0%, 전년 동월 대비 2.7% 감소를 기록함**

- 고금리, 고물가에 따른 경기 부진을 비롯하여 현대·기아 부품협력업체 부분파업, 한국지엠의 임단협 협상에 따른 부분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 7월 말 하계휴가에 따른 공장 휴무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2.7% 감소한 13만 2,396대를 기록함
- 다만, 친환경차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19.7% 증가한 50,578대를 기록했으며, 세부적으로 수입 하이브리드 모델의 판매 호조로 하이브리드는 22.4%, 테슬라 판매호조로 전기차는 17.0% 증가함

**7월 수출·생산은 전월 대비 각각 두 자릿수인 20.6%, 17.7% 감소함**

- 수출은 하이브리드차, SUV의 북미시장 수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현대, 한국지엠의 부분파업에 따른 조업일수 및 수출 물량 감소로 전년 동월 대비 12.9% 감소한 200,181대를 기록함
- 생산은 내수 부진 및 부분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로 전년 동월 대비 17.6% 감소한 290,906대를 기록함

'24년 7월 국내 자동차산업 동향

단위 : 대, 백만$, %

| 구분 | 2023년 | | | 2024년 | | | 증감률 | | |
|---|---|---|---|---|---|---|---|---|---|
| | 연간 | 7월 | 1~7월 | 6월 | 7월 | 1~7월 | 전월 대비 | 전년 동월 대비 | 전년 동기 대비 |
| **내수** | **1,739,249** | **136,066** | **1,029,803** | **137,892** | **132,396** | **930,939** | **-4.0** | **-2.7** | **-9.6** |
| (국산차) | 1,451,663 | 114,746 | 874,067 | 109,885 | 107,877 | 775,456 | -1.8 | -6.0 | -11.3 |
| (수입차) | 287,586 | 21,320 | 155,736 | 28,007 | 24,519 | 155,483 | -12.5 | 15.0 | -0.2 |
| **수출** | **2,766,271** | **229,746** | **1,651,166** | **252,244** | **200,181** | **1,667,261** | **-20.6** | **-12.9** | **1.0** |
| (완성차 수출액) | 70,864 | 5,903 | 41,550 | 6,201 | 5,367 | 42,370 | -13.4 | -9.1 | 2.0 |
| (부품 수출액) | 22,954 | 2,022 | 13,646 | 1,756 | 2,215 | 13,533 | 26.1 | 9.5 | -0.8 |
| **생산** | **4,243,597** | **352,972** | **2,550,668** | **353,567** | **290,906** | **2,436,188** | **-17.7** | **-17.6** | **-4.5** |

자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산업동향 보고서(2024.08.26.), https://www.kama.or.kr/NewsController?cmd=V&boardmaster_id=industry&board_id=12323&menunum=0004&searchGubun=&searchValue=&pagenum=1#(2024.09.23. 검색)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43)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산업동향 보고서(2024.08.26.), https://www.kama.or.kr/NewsController?cmd=V&boardmaster_id=industry&board_id=12323&menunum=0004&searchGubun=&searchValue=&pagenum=1#(2024.09.23. 검색)

## 2 메르세데스-벤츠, 경쟁사 탈출에도 중국에 추가 투자[44)]

**메르세데스-벤츠는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에 공격적인 투자로 시장을 확대하는 등 각별한 공을 들이고 있음**

- 벤츠의 연간 글로벌 판매량은 200만여 대이며, 이 중 약 70만 대는 중국에서 판매되는 등 중국 의존도가 높음
- 벤츠는 중국 베이징자동차그룹과 51대 49 비율로 합작회사 BBAC(베이징벤츠오토모티브)를 설립해 현지에서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누적 생산량은 500만 대를 넘어섬
- '22년에는 상하이에 R&D 센터를 설립해 커넥티비티·자율주행·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연구를 진행하는 등 중국 시장에 투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9월 5일에는 중국 전기차 시장에 140억 위안(약 2조 6,0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 벤츠의 대규모 중국 투자는 중국산 전기차 브랜드들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한 전략인 것으로 보이며,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들이 중국 사업의 방향성을 바꾸거나 사업을 축소 및 철수하려는 움직임과 대조됨
- 현대차의 현지 판매량은 '16년 100만 대가 넘었으나, '23년 약 25만 대를 기록하는 등 감소하고 있어 현대차와 베이징자동차가 5대 5로 합작 설립한 베이징현대를 수출 전진 기지로 전환하고 있음
- 외신에 따르면 폭스바겐의 중국 판매량도 3년 전보다 25% 감소한 134만 대를 기록했으며, GM도 중국에서 적자를 기록하며 시장을 축소하고 있음

**벤츠의 중국 시장 투자 배경에는 벤츠 그룹의 주요 주주가 중국 기업인 것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

- 벤츠 그룹의 최대 주주는 중국 베이징자동차로 지분 9.98%를 보유하고 있으며, 2대 주주는 지리자동차의 리수푸 회장 소유 투자회사인 TPIL로 지분 9.69%를 보유하고 있음
- 그 외에도 중국은 벤츠 글로벌 판매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요한 시장이며, 현지 업체 공세에도 견조한 판매량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시장 대응을 위한 추가 투자가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임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44) 뉴스1(2024.09.13.), https://www.news1.kr/industry/auto-industry/5537791(2024.09.23. 검색)

## 3 현대차그룹, GM과 전방위 전격 협력[45)]

**세계 3위 현대차그룹과 전통의 자동차 강자 GM이 전격 협력에 나서면서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 변동이 일어날 조짐을 보임**

- 9월 12일, 현대차그룹은 GM과의 협력을 발표했으며, 주요 내용은 승용·상용 내연차, 친환경 에너지, 전기·수소 기술 공동 개발·생산과 원자재, 철강 및 기타 소재 통합 조달 등임
- 지금까지 주요 완성차 그룹 간 공급망과 생산 설비를 공유하는 사례는 드물었기 때문에 공급망 관리(SCM)와 관련하여 두 거대 기업이 손을 잡은 점이 주목됨
- 특히, 완성차 기업 간 공동 생산 추진을 통해 현대차그룹은 GM그룹과 여러 생산기지를 유동적으로 교차 운영하며, 각 브랜드의 신차 출시와 사업 상황에 맞춰 차량을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교차 생산함으로써 유휴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기회비용을 절감하며 생산 기술을 공유하는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전망임

**전기차나 수소차는 아직 판매 대수가 충분치 않아 양사가 손을 잡으면 부품 조달비용을 낮추고 기술 개발 부담도 덜 수 있을 전망임**

- 양사의 협력으로 더욱 안정적인 부품·원자재 공급망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차량용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핵심 부품의 경우 공동 구매 추진 시 협상력이 높아져 단가를 낮출 수 있어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해짐
- 또한, 핵심 부품에 대한 내재화와 공동 연구 개발 시 경우 경쟁 우위를 높일 수 있어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과 투자에서도 양사가 협력하면 상용화 시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양사는 전기차·수소차·자율주행 등 미래차 분야에서 단순 기술 교류를 넘어 글로벌시장 지배력을 강화할 협력 사례를 제시할 것이라는 전망임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45) 매일경제(2024.09.12.), https://www.mk.co.kr/news/business/11116707(2024.09.23. 검색)

## 4 포드, 2년 만에 인도 완성차 생산 재개[46)]

**공급망 위험을 피하기 위해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은 생산기지를 다양화하고 있으며, 포드의 인도 생산 재개는 그 일환인 것으로 보임**

- ’95년 인도에 처음 진출한 포드차는 생산비용 증가 등으로 ’21년 인도 내수용 자동차 생산을 중단했으며, 수출용 자동차 엔진은 서부 구자라트주 공장에서 계속 생산했으나 ’22년에 수출용 자동차는 생산을 중단함
- 9월 13일 포드차는 인도 남부 타밀나두주 첸나이 공장 문을 다시 열어 수출용 자동차를 생산하겠다고 밝혔으며, 자동차 생산 중심지로 인도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전략인 것으로 보임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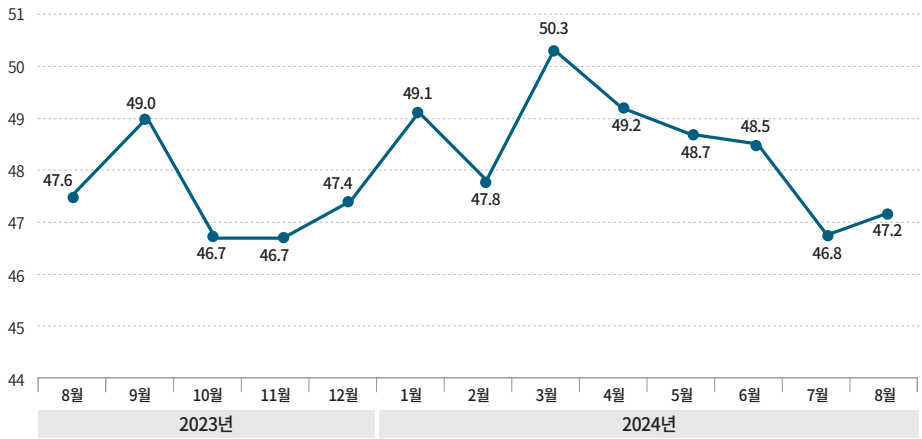
46) 한국경제TV(2024.09.14.),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409140239&t=NN(2024.09.23. 검색)

## 12) 잡화

### 1 미국 공급자관리협회(ISM), 8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47.2p 기록[47)]

- **전월(46.8p) 대비 0.5p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경기 위축세는 지속되고 있으며, 지난 21개월간 제조업 경기 위축세가 관찰되고 있는데 이는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영향으로 파악되고 있음**
  - 8월 미국 제조업 부문의 신규주문(47.4p→44.6p), 생산량(45.9p→44.8p), 고용(46.0p→43.4p) 모두 전월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고용은 3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음

**미국 PMI (구매관리자지수) 추이**




자료: Trading Economics (2024.09.02.), KMI 작성

**이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8, sygen@km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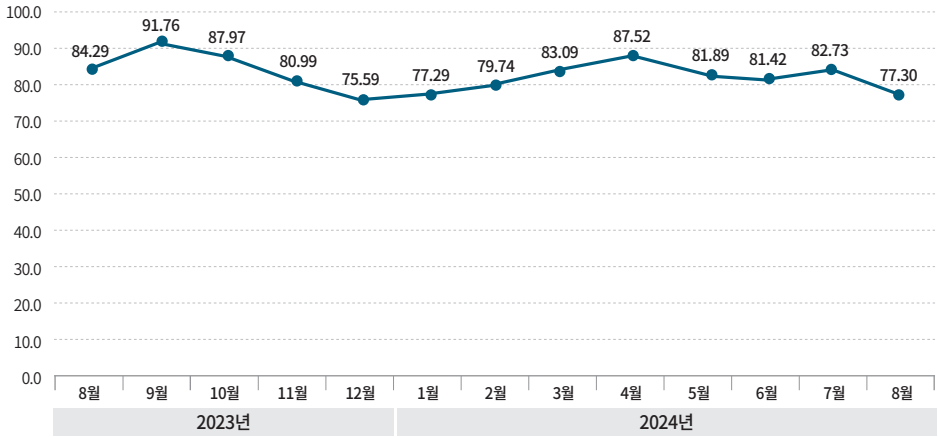
47) Trading Economics(2024.09.03.), https://tradingeconomics.com/united-states/business-confidence (2024.09.23. 검색)

## 13) 유류

### ① '24년 8월 국제유가, Dubai, Brent, WTI 모두 전월 대비 하락

- **'24년 증감을 거듭하던 국제유가는 8월 다시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연초와 비슷한 수준이 되었으며, 세계 3대 유종의 배럴당 8월 평균 유가는 77.30달러를 기록함**
  - 지속되는 OPEC+ 중심의 석유 감산 정책에도 수요 부진으로 유가가 크게 높아지지 않으면서 주요 산유국들의 재정이 악화되어 감산 기조가 일부 완화될 전망임
  - 다만, 러-우 전쟁과 이-팔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동 정세의 긴장이 이어지고 있어 유동적인 시장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국제 원유 가격 추이**




| 구분 | 2023년 | | | | | 2024년 | | | | | | | | 증가율(%) | |
|---|---|---|---|---|---|---|---|---|---|---|---|---|---|---|---|
|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전월 대비 | 전년 동월 대비 |
| Dubai | 86.46 | 93.25 | 89.75 | 83.55 | 77.33 | 78.85 | 80.88 | 84.18 | 89.17 | 84.04 | 82.56 | 83.83 | 77.60 | -7.4 | -10.2 |
| Brent | 85.10 | 92.59 | 88.70 | 82.03 | 77.32 | 79.15 | 81.72 | 84.67 | 89.00 | 83.00 | 83.00 | 83.88 | 78.88 | -6.0 | -7.3 |
| WTI | 81.32 | 89.43 | 85.47 | 77.38 | 72.12 | 73.86 | 76.61 | 80.41 | 84.39 | 78.62 | 78.70 | 80.48 | 75.43 | -6.3 | -7.2 |
| 평균 | 84.29 | 91.76 | 87.97 | 80.99 | 75.59 | 77.29 | 79.74 | 83.09 | 87.52 | 81.89 | 81.42 | 82.73 | 77.30 | -6.6 | -8.3 |

자료: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유가동향 국제유가, 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4.09.23. 검색)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 2 국제유가 급락으로 OPEC+ 8개국 자발적 감산, 11월까지 연장[48)49)]

**OPEC+ 8개국이 9월 말까지로 예정했던 자발적 원유 감산을 11월까지 연장하기로 함**

- OPEC+ 회원국인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이라크,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카자흐스탄, 알제리, 오만 등 8개국은 하루 220만 배럴 규모의 추가 자발적 감산을 11월 말까지 두 달간 연장하기로 합의함
- 이후에는 월 단위로 감축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거나 필요에 따라 조정을 철회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기로 함
- 당초 10월부터 감산 규모를 하루 18만 배럴씩 점진적으로 축소하면서 석유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었으나 미국과 중국의 경기침체 우려로 국제유가가 급락하자 가격을 부양하기 위해 연장하게 됨
- 이로 인해 지난해 11월 시작된 하루 220만 배럴 규모의 자발적 감산은 올해 11월까지 연장된 뒤 내년 11월까지 서서히 축소돼 산유량은 늘어나게 될 전망임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48) 파이낸스 투데이(2024.09.06.),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3371(2024.09.23. 검색)
49) 서울와이어(2024.09.06.), https://www.seoulwire.com/news/articleView.html?idxno=620578(2024.09.23. 검색)

## 3 첫 상용화 설비인 LNG·LPG 복합발전, 올해 말부터 상업 가동 예정[50)]

- **세계 첫 액화천연가스(LNG)·액화석유화학(LPG) 복합발전소 가동을 준비하는 SK가스는 9월 예정이던 상업 가동 시점을 운영 안정성을 높이기 올해 말로 연기함**
  - LPG 전문수입사로 출발한 SK가스는 수송용 LPG 수입에서 석유화학 원료용 LPG 수입으로 사업을 확장했으며, 그다음 단계로 LNG 사업 진출을 준비해옴
  - SK가스는 자회사인 울산GPS를 통해 울산 LNG·LPG 겸용 가스복합발전소 건설에 1조 4,000억 원을 투자하여 '22년 3월 착공하여 발전소를 건설했으며, 올해 5월 첫 점화, 6월 시운전 가동을 거쳐 당초에는 올해 9월부터 상업 운전에 나설 계획이었음
  - 다만 LNG·LPG 복합발전 사례가 없어 안정적인 상업 가동을 위해 올해 말로 상업화 시점을 연장함
  - 한편, 울산 소재 LNG터미널인 코리아에너지터미널(KET)이 LNG 도입 및 공급을 담당하고 있으며, 울산GPS는 LNG·LPG 복합발전을 시작으로 중장기적으로는 '30년부터 수소 혼소, '50년부터 수소 전소 발전할 계획임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50) 더벨(2024.09.13.), https://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409121622277400108653(2024.09.23.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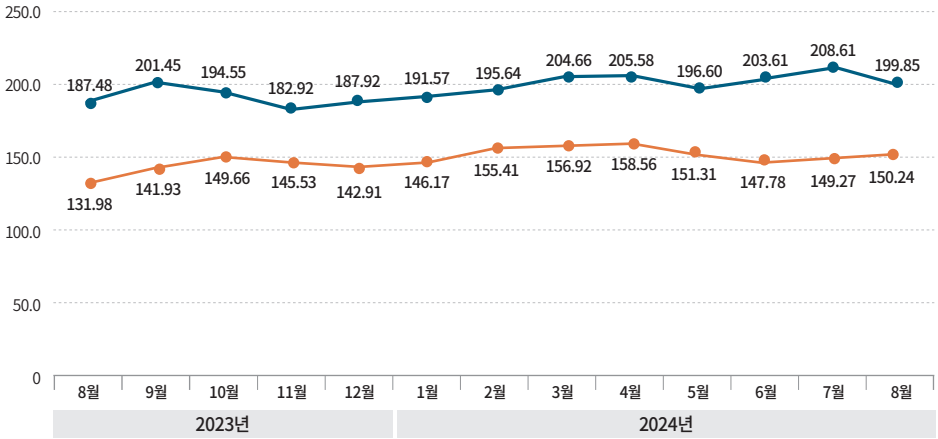
## 14) 화학공업 생산품

### 1 8월 생산자물가지수, 전월 대비 나프타 하락·에틸렌 상승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나프타가 하락했으며, 에틸렌은 상승하면서 각각 199.85p, 150.24p를 기록함**

- 원유 정제를 통해 생산되는 나프타의 '24년 8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4.2% 하락, 전년 동월 대비 6.6% 상승함
- 나프타 크래킹을 통해 생산되는 석유화학산업의 핵심원료인 에틸렌의 '24년 8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6%, 전년 동월 대비 13.8% 상승함
- 유가 하락이 8월 나프타 생산에 영향을 주면서 생산자물가지수가 감소했으며, 일반적으로 에틸렌의 원료가 되는 나프타가 에틸렌 대비 선행하는 점을 고려하면 9월 에틸렌의 생산자물가지수도 하락할 것으로 보임

생산자물가지수 추이




| 구분 | 2023년 | | | | | 2024년 | | | | | | | | 증가율(%) | |
|---|---|---|---|---|---|---|---|---|---|---|---|---|---|---|---|
|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전월 대비 | 전년 동월 대비 |
| 나프타 | 187.48 | 201.45 | 194.55 | 182.92 | 187.92 | 191.57 | 195.64 | 204.66 | 205.58 | 196.60 | 203.61 | 208.61 | 199.85 | -4.2 | 6.6 |
| 에틸렌 | 131.98 | 141.93 | 149.66 | 145.53 | 142.91 | 146.17 | 155.41 | 156.92 | 158.56 | 151.31 | 147.78 | 149.27 | 150.24 | 0.6 | 13.8 |

자료: 국가통계포털 생산자물가지수(원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vw_cd=MT_ZTITLE&list_id=P2_301002&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2024.08.21. 검색)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 2 석유화학 업계, 미국발 에틸렌 수출 증가 우려[51)]

**우리나라 석유화학업계는 핵심 제품인 에틸렌의 주요 수입국이었던 중국의 자급자족 성공으로 수출이 어려워졌으며, 미국의 공급 과잉으로 부담감이 커지고 있음**

- 미국은 천연가스에서 추출한 에테인으로 대규모 에틸렌을 만들어 글로벌 시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에테인의 가격은 갤런당 12센트로 상대적으로 저렴해 미국산 에틸렌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음
- 저렴한 원료가격으로 인해 미국 폴리에틸렌 생산 업체 가동률은 9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산 에틸렌이 세계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갖게 되었으나,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천연가스가 아닌 원유에서 추출한 나프타로 에틸렌을 만들고 있음
- 미국산 천연가스는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최근 중동 정세 불안이 지속되면서 국제원유 가격은 변동성이 커지면서 우리나라 제품은 가격경쟁에서 밀리고 있음
- 우리나라 석유화학 업계는 중국 수출 감소에 따른 대체 수출처 확보 과제와 함께 가격에서 우위를 갖춘 미국산 에틸렌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함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51) 뉴데일리경제(2024.08.21.),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4/08/21/2024082100063.html(2024.09.23. 검색)

## 3 SK에너지, 지속가능 항공유 전용 생산라인 구축[52)]

- **SK에너지가 국내 최초로 지속가능 항공유(Sustainable Aviation Fuel, SAF) 전용 생산라인을 갖추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상업 생산을 시작할 예정임**
  - SAF 전용 생산라인은 코프로세싱(Co-Processing) 방식을 적용하여 석유 원료와 바이오 원료인 폐식용유, 동물성 지방 등을 동시에 투입해 저탄소 제품을 생산하게 됨
  - 바이오원료 저장탱크에 5km 길이의 전용 배관을 설치하여 원료를 지속적으로 석유제품 생산 공정에 투입하여 연속적인 SAF 생산이 가능함

- **SK에너지는 전용라인을 갖춘데 이어 안정적인 바이오 원료 공급망을 확보하여 SAF 시장을 선도할 계획임**
  - 안정적인 바이오 원료 확보를 위해 SK이노베이션 자회사인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은 폐자원 기반 원료 업체에 지분투자를 진행했으며, 인피니움과 협업해 그린수소 및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이퓨얼 기술 개발도 병행하고 있음
  - SK에너지는 국제항공 분야 SAF 생산 인증인 ISCC CORSIA 인증, EU의 저탄소 연료 인증인 ISCC EU 인증, 자발적 시장의 친환경 제품 인증인 ISCC PLUS 인증을 획득하여 판매할 준비를 마쳤으며, 내년 초부터 대한항공 여객기에 SAF를 공급할 예정임
  - SK에너지는 코프로세싱 방식으로 SAF를 생산하되 시장 상황에 따른 SAF 전용 생산 설비 도입도 고려하고 있으며, 국내외 SAF 정책과 수요 변동을 모니터링하여 생산 확대를 검토할 계획임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52) 서울와이어(2024.09.11.), https://www.seoulwire.com/news/articleView.html?idxno=621067(2024.09.23. 검색)

집필 내역

## 연구책임자

**최석우** 항만수요분석연구실장

## 연구진

**이기열**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연구위원
**김영훈**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신정훈**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이나영**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이수영** 항만정책·운영연구실 전문연구원
**이화섭**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조성현**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연구원

## 감 리

**김근섭** 항만연구본부장


# 항만과 산업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발행일** 2024년 9월 30일

**편집·발행인** 김종덕 원장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항만수요분석연구실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www.kmi.re.kr
**TEL** 051-797-4800 **FAX** 051-797-4810

**편집디자인** 크리커뮤니케이션 **TEL** 02-2273-1775